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대가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남·여학생의 차이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이 복 자

2016년 8월

#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대가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남·여학생의 차이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최 보 영

이 복 자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6월

이복자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년 8월

<국문초록>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대가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남·여학생의 차이를 중심으로

이 복 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최 보 영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대가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남·여학생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대는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대가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여학생의 차이는 어떠한가?

2-1 남자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대가 학업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2 여자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대가 학업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제주시 중학교 2곳, 서귀포시 중학교 3곳 총 5곳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1,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하였으며, 총 400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 답변 28부를

제외한 372부를 최종 확보하여 통계 작성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 학업성취기대 척도는 오은진(2013)이 사용한 총 24문항의 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다음으로 학업스트레스 척도는 곽민경(2015)이 사용한 총 35문항의 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료 분석방법은 SPSS for Window 18.0을 이용하여 상관분석 및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학업 압박기대와 학업스트레스 각 하위요인 및 하위요인을 모두 합산한 학업스트레스 전체와의 상관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학업압박기대가 높아질수록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아버지의 학업 지지기대와 학업스트레스 전체 및 하위요인별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설명된 학업 압박기대와는 반대로 중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학업 지지기대가 높아질수록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학업 압박기대와 학업스트레스 간에도 이와 동일한 양상이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학업 압박기대와 학업스트레스 각 하위요인 및 하위요인을 모두 합산한 학업스트레스 전체와의 상관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학업 압박기대가 높을수록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어머니의 학업 지지기대와 학업스트레스 전체 및 하위요인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설명된 학업 압박기대와는 반대로 중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학업 지지기대가 높아질수록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학업기대가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

·여학생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 중학생의 경우, 남자 중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학업 압박기대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의 과도한 압박적인 학업기대가 남자 중학생들에게는 학업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여자 중학생의 경우, 여자 중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학업 압박기대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학업 지지기대가 높을수록 여자 중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어머니의 과도한 압박적인 학업기대가 여자 중학생들에게는 학업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어머니의 지지적인 학업기대는 여자 중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살펴보면,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대가 학업스트레스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남·여학생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남자 중학생의 경우는 아버지의 학업기대의 영향에 따라 학업스트레스를 높게 받을 수도 있고, 낮게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자 중학생의 경우는 어머니의 학업기대의 영향에 따라 학업스트레스를 높게 받을 수도 있고, 낮게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남·여학생이 동성의 부모와 맺는 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한 부모·자녀의 관계 증진을 위한 방법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부모·자녀의 긍정적인 관계 맺기를 위한 가정에서의 대화 방법 및 소통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목 차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및 가설 .....	6
3. 용어의 정의 .....	7
<b>II. 이론적 배경</b> .....	9
1. 제주특별자치도 중학생 .....	9
가. 제주특별자치도 .....	9
나. 중학생 .....	12
2. 부모 학업기대 .....	14
가. 부모 학업기대의 개념 및 중요성 .....	14
나. 부모 학업기대의 유형 .....	16
다. 부모 학업기대 관련 선행연구 .....	18
3. 학업 스트레스 .....	20
가. 학업 스트레스의 개념 .....	20
나. 청소년기 스트레스 .....	22
4. 부모학업기대와 학업스트레스 관계 선행연구 고찰 .....	25
<b>III. 연구방법</b> .....	29
1. 연구대상 .....	29
2. 연구절차 .....	29
3. 연구도구 .....	30
4. 자료처리 및 분석 .....	33
<b>IV. 연구결과 및 해석</b> .....	35
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평균 및 표준편차 .....	35

2. 부모학업기대, 학업스트레스의 상관관계 .....	36
3. 부모학업기대와 학업스트레스 간 관계 남·여 성별차이 .....	40
<b>V. 논의 및 결론 .....</b>	<b>44</b>
참고문헌 .....	54
Abstract .....	69
부록목차 .....	72



## 표 목 차

<표 II-1> 도움 요청대상 .....	11
<표 II-2> 가족의 정서적 지원정도 .....	11
<표 III-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29
<표 III-2> 자료수집 일정 .....	30
<표 III-3> 학업기대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32
<표 III-4> 학업스트레스 척도 문항 구성과 신뢰도(Cronbach $\alpha$ ) .....	33
<표 IV-1> 부모학업기대,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기술 통계량 .....	35
<표 IV-2> 부모학업기대와 학업스트레스 간 상관계수( $r$ ) .....	36
<표 IV-3>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부모학업기대의 중다회귀분석 .....	38
<표 IV-4> 학업스트레스 하위요인에 대한 부모학업기대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요약 .....	39
<표 IV-5> 부모학업기대와 학업스트레스 간 남·여 성별 상관계수( $r$ ) .....	40
<표 IV-6>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부모학업기대의 중다회귀분석 (남학생) .....	41
<표 IV-7>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부모학업기대의 중다회귀분석 (여학생) .....	41
<표 IV-8>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부모학업기대(압박기대)의 중다회귀분석 .....	42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열정과 힘이 넘치고 성인기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기인 동시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자신의 본 모습에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여 혼돈이 함께 있는 시기이다. 청소년은 아동과 성인의 과도기적 단계로 여러 가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곽민경, 2014; 성순옥, 2013). 이러한 특성을 지닌 청소년 시기는 아동기인 초등학생 시기, 초기 청소년 시기인 중학생, 후기 청소년 시기인 고등학생으로 나뉘어 설명되어진다. 한국에서의 초등학생은 보통 만 6·7세에서 12세까지의 연령대 아동으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최병두, 2011). 이 시기는 구체적인 규칙들을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습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학습을 통하여 더 넓은 사회에 적용하는 법을 단계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최병두, 2011). 이러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학업보다는 자신의 자녀가 다방면에서 특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다. 따라서 학업관련 학습을 시키면서도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영역의 교육을 주로 시키는 것이다(송은영, 2007). 중기 청소년기인 고등학생은 주로 15세에서 18세까지의 고등학생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는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기를 시도한다. 그리고 진로문제, 이성문제, 학업 성적 등을 중요하게 고민하게 되며, 개인의 정체감 또한 확립하려는 의지가 있는 시기이다(송은영, 2007). 고등학생 시기에 부모에 대한 애착이 낮아지고, 반면에 또래 애착은 더 높아지는 것(김정민, 유안진, 2005; 오송희, 1999; 장휘숙, 1997; Blos, 1978; Steinberg & Silverberg, 1986)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에서도 고등학생 시기의 특징을 알 수 있다(조현영, 2010).

반면, 초기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는 중학생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초등학교와는 사뭇 다른 교육환경과 사회에서의 인식과 대면하게 된다(이재연, 2014). 또 중학생 시기는 학교에서의 학습 및 학업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학업활동은 고등학교 진학 및 대학 진학과 자신의 진로와도 직

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학생들의 학업문제는 중학생 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가정과 그 안의 부모가 결부된 중요한 문제이기도하다. 따라서 학업 및 학습과 관련하여 중학생들은 부모와의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이재연, 2014).

2014년도 한겨레신문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 지수를 조사한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이 행복 및 불행을 느끼는 경우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실컷 할 때’ 평소 행복을 느낀다고 대답했으며, 평소 불행하다고 느낄 때는 ‘과도한 학업성적의 압력’과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클 때’라고 답하였다(한겨레신문, 2014. 5.). 특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하루 일과시간의 대부분을 학교라는 테두리와 또는 방과 후 시간을 할애하는 학원이라는 학습의 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그 속에서 경쟁과 비교 등으로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감정 경험들을 많이 하며,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 또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김미경 외, 2012).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2012)에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학교공부 및 성적,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이고 우울한 정서감 경험(65.1%)을 가장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이 느끼는 공부 및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12).

이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해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최고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높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학령기의 청소년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최대 관심사는 당연히 공부이며, 상위권의 성적일 것이다.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의 공부와 성적향상에 그들의 경제적, 정신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자녀가 다른 가정의 자녀들보다 학업으로 앞서길 바라는 마음의 반영이다(이수진, 조상철, 허일범, 2008).

인간은 모두 부모로 인하여 태어나고 성장발달해가는 시간동안 부모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부모와의 관계를 통하여 각자의 역할 습득을 하며, 작은 사회인 가정에서의 생활을 기본으로 사회규범을 알게 된다. 또한 언제나 부모의 애정과 관심과 사랑 및 때론 통제를 통하여 발달해간다(김영희, 최명선, 2001).

Bandura(1969)와 같은 사회학습 학자들은 중요한 타인(부모, 교사)의 환경적 요인(기대, 규범, 행동)등이 개인의 행동을 형성할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강화가 된다고 했다. 또 사회적으로 어떤 행동이 적절한 것인지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이 사회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청소년 심리학, 한국청소년개발원, 2011, 교육과학사). 이것은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들의 언어와 행동 및 기대 수준을 지각하여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 있어 모든 사람들이 청소년들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대상이 부여하는 기대는 작지만 의미 있는 것으로 인지되고 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대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욕구를 말한다(안기준, 2001). 기대는 인간에게 있어 무엇을 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언어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도 전달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은 성인의 기대를 지각하고 느끼며 그것을 내면화한다(윤영애, 1988). 즉 자신에게 의미 있는 주변의 중요 타인의 기대가 지각됨으로서 자신에게 내면화되고 자아개념과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개인적인 기대 및 기대수준을 설정하고, 그 설정 기준에 맞게 성장하기를 바란다. 부모의 적절한 기대는 아동의 긍정적 발달에 영향(오영미, 1998; 정미조, 1990)을 미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모의 98.9%가 자녀를 4년제 대학까지 보내고 싶어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희망에는 못 미치는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88.9%로 나타나, 부모의 기대와 자녀들이 바라는 기대치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0). 이와 같이 부모의 기대가 과도하게 높을 경우, 자녀는 어쩔 수 없는 심리적 불안 상태에 있게 되며, 이것은 자녀들에게 심리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김기열, 김무길, 1971; 이수진, 2000).

따라서 부모의 기대와 관련 한 부모 역할에 대한 학문적 관심 또한 증가되는 추세이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경원(1998)은 부모·자녀 관계에서 아들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 더 의미를 두며, 반면 딸들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더 큰 의미를 둔다고 한다. 또 김영희, 최명선(2001)은 여학생이 자신의

부모 중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고 했으며, 반면 남학생은 아버지에 대해서 여학생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상림(2005)은 자녀가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서 남학생은 아버지의 성취 지향적인 양육태도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여학생은 반면 어머니의 애정지향적인 양육태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 남학생과 여학생은 자기와 같은 성을 가진 동성의 부모에게 더 긍정적인 이미지로 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영희, 최명선, 2001; 성영혜, 1996). 이것은 청소년들의 성과 관련한 정체감 발달 및 동일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각 개인들의 성과 관련한 차이는 가정과 사회, 더 나아가서는 문화적으로 남자 또는 여자로서의 역할이 부여되는 바탕이 된다. 따라서 사회는 이에 맞는 적절한 역할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각 개인의 사고와 생활 등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영희, 최명선; 2001).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남·여학생이 자신의 부모에 대하여 지각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녀기대 보다 자녀가 그들의 부모에 대하여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을 살펴 본 결과 남·여학생이 부모에 대해서 가지는 지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여의 성별차이의 다름과 기질의 다름에서 유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nner(1990)에 의하면 남아는 여아보다 체격이 크고 강할 수 있으며, 화도 잘 내고 활동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며, 반면 여아는 좀 더 빨리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며 민감한 기질을 타고 났다고 하였다(한윤영, 2010). 또 남아는 외현적인 행동을 많이 나타내는 반면 여아는 내현적인 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연구도 있다(박미진, 2012;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1991; 하영희, 2003; 한미현, 1996). 이러한 기질 적 차이를 보이는 선행연구와 맞물려 또 다른 남·여의 차이를 보이는 선행 연구들도 있다. 김태명, 이은주(2015)의 연구에서는 성별 자아개념의 차이에서 사회성, 운동능력 및 품행 등의 자아개념에서 남학생의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모 자아개념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정미(2010)가 연구한 자아개념의 남·여 차이에서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 보다 높다는 결과에 의견을 뒷받침 한다. 성 의식에 대한 남

·여의 차이를 연구한 이창석, 김윤정(2003)의 연구에서도 남자 청소년들은 성에 대하여 개방적인 반면, 여자 청소년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다고 하였다. 류성기(2003)의 연구에서도 남·여학생의 대화를 하는 방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 수 있다. 남학생은 대화를 할 때 일 위주의 대화를 주로 하면서 꼭 필요할 때만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들은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때에도 인간관계의 증진을 위해서 수시로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여학생의 성취수준의 차이 연구에서도 남·여학생의 성에 대한 역할을 다르게 규정하므로, 남·여학생에 있어서 성취동기를 부여하는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한다(김규석, 2009). 위의 선행연구들에서도 보여 지는 것처럼 남·여의 성별 차이가 확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남·여학생의 성별특성 및 기질적인 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고, 부·모에 대한 지각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알 수 있다. 그러나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대를 남·여학생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선행연구가 드물고, 또 부·모의 학업기대를 학업 지지기대와 학업 압박기대 각각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선행연구 또한 드물다. 이에 본 연구자는 중학생을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분하여 그들 각각이 부모의 학업기대를 지각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중학생들이 가장 크게 경험하고 있는 학업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대처기체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모 학업기대의 관계를 연구하여 중학생들이 학업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학업기대는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1.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대는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2.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학업기대가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여학생의 차이가 어떠한가?

연구문제 2-1. 남자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학업기대가 학업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2-1. 남자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학업기대가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2-2. 여자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학업기대가 학업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2-2. 여자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학업기대가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용어의 정의

#### 가. 중학생

본 연구에서의 중학생의 의미는 2015년 11월 ~ 12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1, 2, 3학년을 일컫는다. 곧 중학교 2학년을 맞이할 1학년들과, 중학교 2학년으로서 1학년을 보낸 경험이 있는 2학년들, 그리고 졸업을 앞 둔 3학년들을 모두 포함시켜 좀 더 넓은 범위의 중학생들의 특성을 본 연구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 나. 부모 학업기대

부모학업기대는 부모 기대 중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갖는 학업 적 성취 또는 학업 적으로 성취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자녀들이 일련의 노력을 기울이면 부모들이 바라는 대로 성취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는 성취적인 결과적 믿음이다(신향숙,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학업기대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을 부모 지지기대유형 및 부모 압박기대유형으로 분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부모의 학업 지지기대는 부모가 자녀의 학업과 관련하여 갖는 부모의 긍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지극히 주관적인, 미래지향적 가능성에 대한 믿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지지기대를 말한다.

부모의 학업 압박기대는 학업 압력이라고도 하며, 자녀들이 학업 적으로 보유한 능력의 한계를 생각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기대를 가지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자녀는 불안과 스트레스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압박기대를 말한다.

#### 다. 학업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란 학교공부와 관련하여 성적 및 학업에 대하여 학생들이 가지



는 정신적 부담감으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지나친 학업 및 학업성적 기대로 인한 부정적이고 불편한 마음상태(오미향, 천성문, 1994), 즉 학업 및 학업성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부적응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학업스트레스는, 부모의 과도한 학업 성취기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학업관련 스트레스로, 학습 상황에서 생기는 수업과 문제 및 성과 시험, 그와 관련한 성취 및 달성 등과 관련하여 유발되는 불편하고 힘든 것으로 정의하여(2014, 김성희) 사용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제주특별자치도 중학생

#### 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리나라 본 국토와 저 멀리 남해바다를 경계로 하여 떨어진 외진 곳이며, 2015년 12월말 현재 기준 인구가 641,355명이다(제주특별자치도).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리적 특성은 전국적인 조사 시행 시 시간과 비용적인 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된다. 더욱이 표본할당을 해야 하는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 예로, ‘한국 웹슬러 아동 지능검사 4판 표준화검사(곽금주, 오상우, 김청택, 2011)’를 보아도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 연구결과 보고서는 통계청이 2005년에 실시한 한국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전국을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더 작은 하위의 행정구역 까지 포함되도록 표집을 하였다(곽금주, 오상우, 김청택, 2011, 228-229)고 했다. 그러나 2,248명의 조사 대상자 중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사례는 없었다. 이렇듯 제주도가 전국적인 조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주도 학생 수가 타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는 것이 문제로 보여 진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5년)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4월 1일 현재 전국의 총 중학생 수는 1,717,911명인데, 이에 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학생의 수는 23,380(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2015년 자료 참조.)이다. 이는 전국 중학생 총 수의 1.36%밖에 되지 않는 비율이다. 총 학생 수 비율로 표본을 추출할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하여 너무 적은 표본 수가 되므로 이는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결론과 연결되어 생각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반면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연구대상지로서의 장점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본토인 육지와 떨어져 있고 표본의 수가 적다는 문제로 인하여 전국단위의 연구조사에서는 제외되기도 하지만, 반면 섬이라는 특별한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적 동질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타 지역과 비교하여도 다른 지역보다 학생 수가 적다는 점에서 전체학생 대상의 전수조사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등의 실시가 또한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들을 십분 활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특별프로그램이 교육 정책과 맥락을 같이하여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학교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된 ‘어울림’ 프로그램을 예로 들 수 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처 능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교육부의 시책 사업으로 체험형 활동을 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전국의 300개 학교에서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그보다 훨씬 앞선 2012년 7월, 10월에 일부 학교를 선정하여 시범학교로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실시되었다. 그 추진 결과를 기본으로 하여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또 다른 한 예로는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된 인성프로그램을 예로 들 수 있다. 교육부에서 인성교육진흥법(가칭)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준비단계에서 2014학년도 초, 중, 고교 학생들 4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여 인성 수준을 측정하는 인성검사를 시행한다고 하였다(서울신문, 2014, 2. 22.).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초등학교 4, 5, 6학년 및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성 수준을 검사하는 전수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을 발굴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것은 전국을 대표하는 검사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전국적인 계획을 수립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2015학년도부터 시작된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예로 들 수 있다.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곳에서 하는 일은 학생, 학부모 및 학교를 대상으로 몸 건강 및 마음건강 관련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결과로 알 수 있듯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지역적 특성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을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학생들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자는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생활실태조사(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5)에 따른 결과표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중·고등학교 학생 3,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표 II -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 수의 31.4%가 고민이나 도움을 청할 사람으로 가족을 선택하였다. 또한 보호요인으로서의 기능은 부모님이 자신이 필요할 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신다는 비율이 표 II - 2 와 같이 무려 73.8%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중·고등학생들은 물론, 학교 공부가 힘들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부모가 정서적 지지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고등학생들의 공부와 관련한 스트레스 요인을 부모의 긍정적인 격려와 지지로서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II-1. 도움 요청대상

항목	비율(%)
혼자 해결	29.0%
가족과 상의	31.4%
교사와 상의	1.5%
친구와 상의	36.9%
전문기관에 요청	0.5%
기타	0.8%

표 II-2. 가족의 정서적 지원 정도

항목	학생수(명)	비율(%)
충분히 받고 있다	1,140	32.4
받고 있는 편이다	866	24.6
보통이다	977	27.8
조금 받고 있다	419	11.9
전혀 받고 있지 않다	113	3.2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제주시의 2개 중학교와 서귀포시의 3개 중학교를 선별하였다. 남·여 학생의 수도 남 156명, 여 216명으로 하여 최대한 비율을 비슷하게 맞추도록 하였다. 학년 비율에 있어서도 1학년 131명, 2학년 127명, 3학년 114명의 학생들로 구성하여 어느 특정한 학년에 집중되지 않는 중학교 전 학년이 골고루 분포 되도록 하였다. 또한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기대가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또 남·여학생의 차이는 어떠한 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 II - 1, 표 II -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생활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요인 중 학교 공부와 관련 된 부분들이 학생들의 보호요인인 부모의 정서적 지원 및 긍정적인 기대와 상호 관련이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기대를 부모 지지기대와 압박기대로 구분하여 그 영향력이 중학생들의 학업과 학업 스트레스에 어떠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 나. 중학생

인간을 발달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중학생은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된다. 초기 청소년기는 신체적, 지적, 심리적,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영역 등에서 중요한 발달기로서 발달에 필요한 욕구를 충족할 기회를 경험해야 한다(남석진, 2015). 그러나 과도기적 특성으로 인하여 아직도 여전히 성장 발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잔재해 있고, 곧 성인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격동의 시기이다(이재연, 2014).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고 또 경험해야 하는 초기 청소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또한 중학생 시기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중간단계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 및 능력, 그리고 주변 여건 등을 파악한 후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본격적으로 진로를 탐색해야하는 시기이다(류진열, 2009; 장석민, 1985). 따라서 중학생 시기는 진로 탐색의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면서 자신에 대한 객관적이고 올바른 이해와 함께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대한 고려 및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평가해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중학생 시기는 학교에서의 학습 및 학업

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시기이다(이재연, 2014). 이러한 학업활동은 고등학교 진학 및 대학 진학과 자신의 진로와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학생들의 학업문제는 중학생 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가정과 그 안의 부모가 결부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중학생들은 이러한 부모의 학업 기대로 인하여 부모와의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 중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업과 관련된 학업스트레스의 종류로는 시험과 관련한 불안, 성적의 하락, 공부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학업스트레스로 인하여 교사와 부모와의 갈등이 유발되고 때론 심리적 충격을 받기도 한다(김계현 외 2002; 류준열, 2009).

중학생들의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지적인 특성 요인이다. 이것은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 지능과 학업과의 관계는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중학생들이 처한 상황들이 중요하다. 즉, 부모나 또래관계, 가정 및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및 위치, 본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업 성취동기와 성에 대한 역할 기대 등의 것들과 관련한 요인 탐색이 필요하다(류준열, 2009). 둘째는 중학생의 부모 특성 요인이다. 중학생들이 학교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가정이므로 가정 안에서의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업 기대 수준과 그에 반응하는 자녀들의 반응양식 등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류준열, 2009). 셋째는 초기 청소년기인 중학생들이 그들의 애착 대상으로서 가장 의미를 부여하는 또래와의 관계 요인이다. 또래친구들과의 관계 및 갈등요인에 따라 중학생들은 지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으며, 순간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류준열, 2009). 넷째는 가정 및 부모의 사회에서의 지위 및 위치이다. 한국사회는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사교육 열풍이 만만치 않다. 이런 현실 속에서 가정 경제적인 위치가 중산층 이상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자녀들도 교육에 대한 성취동기를 더 높게 가지며, 반면 가정 경제적인 위치가 하위 층인 경우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기도 하고 또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도 한다(류준열, 2009). 마지막으로 성역할 기대 요인을 들 수 있다.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남성위주의 사회였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교육의 기회나 질적인 면에서 우위를 나타냈다. 현대 사회가 성적인 역할 기대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성역할 기대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류

준열, 2009).

현재 초기 청소년기인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입시위주의 교육과 시험위주의 학교생활로 인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학업과 관련하여 시간을 보낸다. 초기 청소년들의 발달 과정 상 학교는 그들의 성장 발달과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학교에서의 학업과 관련한 또래와의 경쟁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여 불안과 효능감 상실을 경험하고, 또한 성적 하락 및 경쟁에서의 패배로 인한 패배의식을 경험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중학생들에게 높은 성적 취득과 경쟁에서의 승리보다는 그들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숨은 잠재력 및 창의력 등을 개발시켜 학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성장 발달 할 수 있는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류준열, 2009; 한상철 외 2001). 이러한 노력은 중학생들이 학업에 있어 보다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게 할 것이다. 그로 인하여 치열한 경쟁을 통한 학습이 아닌 개인들 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개인의 학습의 능력치를 최대한으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학습하게 될 것이다(류준열, 2009).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의미를 초등학교를 졸업하여 현재 우리나라 제주특별자치도를 소재지로 둔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 학년 학생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중학교 1, 2, 3 학년 학생들을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어느 한 학년에 편중되지 않은 연구를 하고자 시도하였다. 또 남·여의 비율도 최대한 비슷하게 함으로써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 2. 부모 학업기대

### 가. 부모 학업 기대의 개념 및 중요성

기대는 어떤 특정 대상이나 환경에 대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욕구 및 바람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전의 경험 및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그 예측한 것을 기다리는 마음 및 행동의 준비상태라고 한다(구본선, 2004; 박금옥, 2007). 그리고 주변의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이 되며, 어떤 상황에 대해 예측하고 기다리는 마음의 준비상태



라고 할 수 있다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학업 적 기대 뿐 만 아니라 자녀의 성장 발달에 관련된 정서적·인지적·지적인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성취를 뜻하기도 한다(주동욱, 2005; 조정현, 2014).

반면, 학업적인 면에서의 기대는 학습에 대해 예측하고 기다리는 마음의 준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부모 학업기대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갖는 학업 적 성취 또는 학업 적으로 성취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자녀들이 일련의 노력을 기울이면 부모들이 바라는 대로 성취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는 성취적인 결과적 믿음을 말한다(신향숙, 2000). 부모의 자녀학업에 대한 관심은 학교에서의 수업과 관련한 성적에 따라 자신의 자녀에 대한 부모 기대가 설정되고, 그에 따른 가정에서의 자녀학습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교 과제나 학교 시험을 대비한 부모의 관심이 시작되며 자녀는 성취결과에 따라 부모들의 적절한 지원이나 성취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박수자, 199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7)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기대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했다. 초등학교 때는 부모들도 자녀들에 대한 광범위한 것들에 대한 기대를 많이 나타내며, 반면 중·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광범위한 영역을 기대하던 초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학업 성적 쪽에만 집중적인 기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중·고등학생을 둔 부모들이 자녀에게 갖는 기대는 주로 학업과 관련하여 학업 기대를 가지는 경향이 많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교육적 기대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성취동기 및 학업성취에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박금옥, 2007). 심수경(2005)의 연구에서 자녀가 부모의 학업 적 기대를 높이 지각할수록 학업 성취의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부모의 학업 적 기대는 학업성적과 관련된 과도한 기대가 아니며, 자녀의 학업 능력에 걸 맞는 기대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에게 높고 과도한 교육적 성취에 급급한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닌, 자녀와 대화의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 자녀와 합의점을 도출하고,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현안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정서적 관심을 가지고 자녀의 학업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일이다.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수준에 대한 김영주(1998)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어



머니들은 대체적으로 자녀에 대한 관심 및 기대가 높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부모들은 누구나 자녀 개인의 능력 및 태도, 한계 등에 대해 어떠한 기대를 가지지만 자녀 개인이 가지는 특성 및 개인 차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과도하고 무리한 기대를 하여 자녀와의 갈등을 겪는다고 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때론 부모 자녀의 관계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치닫는 경험들도 하고 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의 특성 및 능력, 개인차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고 무리하게 높은 기대를 자녀에게 보이게 되면, 그 자녀의 성격 및 행동 양식은 과도하게 행동 지향적이 되기 쉽다. 또 부모의 과도하고 지나친 기대와 관심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이고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구본선, 2004). 이와 같이 부모의 과도하고 지나친 기대로 인하여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과 성장 수준에서 자녀는 심리적·행동적 적응의 측면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Rutter, 1995). 부모가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매우 강하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업기대 및 기대수준은 자녀에게 부모로부터의 성취기대로 지각되어져 자녀의 학업 관련 행동 수준에 영향을 주게 된다.

#### 나. 부모 학업기대의 유형

부모 학업기대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갖는 학업 적 성취 또는 학업 적으로 성취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자녀들이 일련의 노력을 기울이면 부모들이 바라는 대로 성취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는 성취적인 결과적 믿음을 말한다(신향숙, 2000).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학업 적으로 성취하기를 바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긍정적이고 적절한 기대수준 만큼의 기대를 한다. 반면, 과도하게 높은 학업 적 성취기대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공부를 시키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도하게 높은 교육적 성취기대 수준은 때론 자녀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커서 그대로 자녀들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서 작동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을 부모 지지기대 유형 및 부모 압박기대 유형으로 분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부모 학업기대 유형을 분류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학업 지지기대와 학업 압박기대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부모 학업 지지기대는 다음과 같다. Campbell은 지지기대를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심리적 위안 및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행동 및 태도라고 하였다. 지지기대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행동 및 태도가 수용적이며 자녀의 성취동기를 지지해주며 긍정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기대유형을 말한다(김현정, 1997; 오은진, 2013). 유안진, 김연진(1987)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기대와 행동은 자녀의 인지 능력 발달 수준에 바람직한 영향을 준다고 했다. 즉, 이것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부모의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기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부모 학업 압박기대는 다음과 같다. 압박기대는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정신적인 무언의 통제나 태도 및 행동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부모가 가지는 학업압박기대는 자녀들이 학업 적으로 보유한 능력의 한계를 생각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기대를 가지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부모의 과도한 학업기대에 직면하게 되는 자녀는 불안과 스트레스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김현정, 1997; 오은진, 2013). 우리나라와 같이 시험과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다른 집의 자녀들보다 훨씬 교육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이것이 과도한 기대로 표출이 된다. 따라서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들의 과도한 기대를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어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거나 혹은, 다양한 청소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부모의 학업 압박기대는 학업 성취압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자녀의 학업적인 면에 있어서 관심의 정도가 자녀들에게 불안 및 공포를 느끼게 할 정도의 과잉 관심으로 학습 내용 자체가 아니라 학습 효과에 다른 칭찬과 비난, 벌, 사회적 지위와 관련해서 너무 단호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학습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학업기대 유형을 뜻한다(김종범, 1995; 오은진, 2013).

선행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 부모가 가지는 학업기대는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 학업기대를 중학생들이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하고자 한다.

#### 다. 부모 학업기대 관련 선행연구

부모 학업기대란 부모가 자녀의 학습 및 학업 관련 활동에서 자녀가 이루어내길 바라는 것으로, 자신의 자녀가 어떤 특정하고 일정한 노력을 한다면 성취해낼 수 있으리라는 개인적 신뢰 및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다(신향숙, 2000; 박찬웅, 2011). 권현자(1988)에 의하면 부모의 학업 기대는 자녀의 학업성적과 관련하여 부모가 기대하는 만큼 자녀의 성적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으며, 그 중에서도 학교 교육과 관련한 교과활동에 대한 기대가 성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앞서 언급했듯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학업기대 유형은 학업 지지기대와 학업 압박기대로 구분할 수 있다. 부모가 가지는 학업 지지기대를 자녀가 지각했을 때는 학업 적으로 성취감 및 효능감이 올라갈 수 있다. 반면, 과도한 학업압박으로 인하여 학업성취 수준이 오히려 낮아지고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기도 한다.

부모 학업기대를 자녀가 긍정적으로 지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지각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있다. 먼저 부모의 학업기대를 과도한 압박기대로 지각하는 경우의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호숙(1998)은 부모의 학업기대가 지나치게 과도하면 자녀들의 시험에 대한 불안감 및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이것은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Huan, See, Ang, Har(2008)는 본인이 자기에게 갖는 기대와 부모 또는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갖는 기대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하며, 이 스트레스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조금 낮다고 했다(김종백, 김준엽, 2009). Campbell(1994)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기대가 과도하고 지나치게 클수록 자녀는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고 결국 자신의 재능과 능력 등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하여 결국 학업성취는 저조해진다고 했다. 이재구(2000)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내는 학업적인 과도한 압박이 클수록 자녀의 학교생활의 학업적응이 힘들어져 결국 학업성취도가 낮아진다고 했다. 또 박순희(1996)도 부모의 학업기대압력이 높을수록 초등학생의 학업동기는 낮아진다고 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적절하지 못한 과도한 기대는 분명 자녀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다음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기대를 자녀가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학업 지지기대와 관련 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권낙원(1973)은 학생들이 느끼고 지각하는 부모 및 교사의 성취기대가 학생이 느끼고 지각하는 만큼 그들의 학업 성적에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그 중에서도 부모의 성취기대가 자녀들의 학업성취에 더 큰 영향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구명기(1991)도 부모의 교육적 기대로 인하여 학생의 학업성취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박금옥, 2007), 이동규(2010)는 부모 학업기대와 학습동기와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학업지지기대가 학업압박기대보다 학습동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부모로부터 높은 학업지지기대를 받는다고 느낄 때 학습의욕이 높아지게 느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Crandall은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갖는 기대만큼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각한다면 자녀들의 성취동기는 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김현숙, 1995; 박찬웅, 2011). 최미경(2008)은 아동이 부모 또는 교사로부터 높은 기대를 지각할수록 학습동기와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했다. 부모 및 교사의 높은 기대로 인하여 아동들은 학습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기대에 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아동의 학업에 대한 성취도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또 박찬웅(2011)은 중학교 지적장애학생의 부모의 학업기대와 학습동기 간의 관계에서 중학교 지적장애학생의 경우 부모가 가지는 자녀의 기대 중 지지기대와 압박기대 모두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정소희(2010)도 부모의 성취압력은 남아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학업 적 성취동기의 향상을 위해서는 적절한 부모의 성취압력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박금옥(2007)은 부모의 학업기대 수준에 따른 아동의 성취동기 차이분석에서 부모의 학업기대수준이 높은 아동들이 성취동기 역시 높다고 하였다. 심수경(2005)도 부모의 학업과 관련한 교육적 기대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진다고 했으며, 그 중에서도 부모가 가지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자녀의 주요과목의 성취도를 높여준다고 하였다.

위의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 부모의 학업기대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가 가지는 교육적인 기대와 관심이 클수록 오히려 자녀에게 큰 지지효과가 되어 자녀의 학업 적 효능감 및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 반면 그 반대로 자녀가 부정적으로 지각 했을 경우에는 스트레스 요인

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학업기대는 지지기대와 압박기대 모두 청소년들의 학업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모 학업기대 그 자체 보다는, 부모의 학업기대를 자녀들이 어떻게 지각하여 내면화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학업 관련 활동들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 3. 학업 스트레스

#### 가. 학업 스트레스의 개념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 중 초기 청소년기인 중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가 바로 보통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이다. 박새와(2012)는 이러한 보통 생활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 중 중학생들이 가장 노출되기 쉬운 스트레스 요인으로 학업 스트레스를 꼽았고, 다음으로 부모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꼽았다. 이영옥(2010)도 중학생들이 생활 중에 느끼는 스트레스 요인 중 단연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높다고 하였으며 다음으로서는 역시 부모 요인을 경험한다고 했다(이재연, 2014).

청소년들이 겪는 학습자 스트레스 중 하나가 학업 스트레스(academic stress)이다. 학업스트레스는 학업활동으로 인하여 그 활동이 너무나 힘들고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로 우울감과 불편함, 근심과 걱정, 및 그로 인한 정신적 초조함 등과 같은 불행하고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심리상태(곽민경, 2015; 오미향, 천성문, 1994)이다. 즉 학습 활동으로 인하여 생기는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생기는 불행한 심리상태 및 심적 부적응 상태를 말한다(곽민경, 2015). 또는 학업 스트레스를 학교 학습 상황에서 생기는 성적과 시험, 그와 관련한 성취 및 달성 등과 관련하여 유발되는 불편하고 힘든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김성희, 2014).

학업스트레스를 발생하게 하는 요인들은 많다. 학교 안에서의 학습과 관련된 여러 변인들로 인하여 생기는 스트레스, 그 외 또래 친구관계나 교사들과의 관계

형성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학교 밖의 상황인 가정과 관련된 가정 경제적 요소,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 외에 청소년들이 처한 학교나 가정이나 주변 환경들과의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학령기 청소년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요인 일 것이다(오미향, 천성문, 1994).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김계현 등(1996)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성적저하로 인한 걱정과 스트레스이다. 성적이 저하는 자신의 가치가 추락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여 심한 좌절과 열등감을 초래하게 하여 정서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는 시험불안 그 자체이다. 자신의 능력으로 입시와 시험이라는 환경 요인에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불안 증세로 때로는 심각한 청소년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 셋째는 학업능률의 저하이다. 본인 스스로 학업동기도 높고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로 스스로 좌절감에 휩싸이며 부모 또한 안타까움과 실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넷째는 공부 자체에 대한 동기가 결여된 상태이다. 공부보다는 다른 활동들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므로 성적은 역시 저하된다. 마지막으로 학업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이다. 학업에 대한 지나친 몰두로 인한 따돌림이나 소외, 성적과 관련한 지나친 경쟁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교우관계 갈등, 그리고 성적으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들이 있다.(김현희, 2009; 김혜자, 2006; 신현심, 2005).

2016년 3월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의 '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분석해보았다. 서울 청소년(중1~고3, 9710명 대상)들이 스트레스를 인지하거나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작년 서울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생들은 대체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특히 여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이 남학생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그 수치는 남학생은 31.3%이며, 여학생은 42.4%였다. 또 한 가지는 상급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이 더 높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역시나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였다. 현대사회의 교육여건과 성적위주의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 방식이 그들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60.4%가 본



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가장 높게 생각하는 것이 성적 및 진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남·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성적 및 진로에서 남학생이 58.9%, 여학생이 61.9%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헤럴드 경제뉴스, 2016. 3월. 4일). 학생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학업성적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관행적인 교육 제도와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는 학교 교육의 여건 상 모든 청소년층에서 학업과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이다(염행철, 조성연, 2007; 윤정미, 2014).

이처럼 한국의 청소년들은 사회와 부모로부터 과도한 학업기대와 압력으로 인해 자살이나 우울증을 경험하는 등 심리적으로 지치고 힘든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문경숙, 2008; 윤정미, 2014). 광경미(2007)의 연구에 의하면 학벌 중시와 입시위주의 우리나라 학교현실이 학생들에게 많은 스트레스의 유발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에 따른 학업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 나. 청소년기 스트레스

급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해가는 사회 속에서 인간들이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사건과 사고 등 경험하는 것들이 다변화 되어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인간이 경험하는 기쁨과 행복도 커지지만, 그에 반하여 수많은 분쟁과 스트레스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 과거에만 해도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어른들이나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전 연령층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양상이 되었다(김선희, 2004; 황혜정, 2006). 스트레스란 각 개인들에게 삶의 무게감을 주어 어떤 것을 하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의욕을 저하시키고, 항상 걱정을 하게 만들기도 하며, 개인 삶의 모든 부분에 악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는 안전 확보의 위협까지 발생하게 할 수도 있다(황혜정, 김순자, 2001; 황혜정, 2006). Melson은 ‘정상범위에서의 이탈’, ‘환경과의 관계에서의 부적응’, ‘개인이 부적응 범위에서 경험하는 불편한 감정’, ‘신체의 평형상태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영향’, ‘주변 환경이나 개인 내부의 욕구들이 개인의 능력의 한계를 능가할

때 겪는 긴장감' 등으로 스트레스를 정의하였다(김주원, 2003).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학생들의 정서적, 정신적인 측면의 건강을 와해시키는 원인(이경진, 조성호, 2004; 이솔비, 2014; 홍영수, 전선영, 2005)이 될 수도 있다. 노혜숙(1986)은 중학생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 요인을 학업성적, 또래 친구, 외모 관련 등으로 나눴고, 원호택과 이민규(1987)도 학업관련 문제, 인간관계 문제, 가정과 관련된 문제, 학교 관련 문제로 나누어 설명하였다(권현주, 2007). 이러한 중학생들의 스트레스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자신이 달성하지 못한 여러 가지 희망들을 달성해주시기를 바라는 자신 대신으로 생각하고 인식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관심과 욕구를 보이고 자녀의 능력 이상의 기대를 하며 그들 자녀들에게 결국 스트레스를 겪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학령기 시기에는 대부분 시험과 성적 위주의 과중한 학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청소년 학업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청소년들 주변의 주요 중요한 인물들에 의한 기대나 성취압력으로 부터 유발되는 것(최경숙, 2007)이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개인의 인지기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신체적 및 행동의 변화 및 반응 등에 이상을 나타내기도 한다(전세경, 1988; 이솔비, 2014).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유형을 성별로 나눠보면 남학생의 경우, 학업, 부모, 물질, 외모, 친구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는 학업, 외모, 부모, 물질, 친구 순으로 나타났다(황혜정, 2006).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남·여 모두 가장 높았고, 공통적으로 부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게 지각되는 편이었다. 특히 학령기의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라는 공간에서 보내게 되므로 학교에서의 학습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많은 노출이 될 수 있다. 청소년기의 학습자 스트레스는 학습자들의 생활환경인 학교나 가정 및 그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갈등과 과도한 억압 및 강압적인 것들로 인해 생기는 내적인 요인인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대부분이다(김용래, 김태은, 2004; 이솔비, 2014).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이 학교 공부와 관련한 문제, 경쟁에서 이겨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 진로설정에서의 어려움, 또래 관계 형성 및 지속의 어려움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청소년들에게는 직접적인 삶의 위협 요소들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스스로 자아와 자아강도 및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의지를 보이며, 반대로 스스로 자아와 자아강도 및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회피하며, 자신의 삶의 질을 떨어뜨려 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정경택, 2003; 한아름, 2013). 그러나 청소년기 특성상 같은 스트레스에 처해있을 때도 상대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박성자, 2002; 신지선, 2015). 성인과 달리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미약하므로 스트레스가 다가왔을 때 상황대처 능력이 부족하여 도피하려는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권정혜, 2000; 신지선, 2015).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는 그들의 정신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임규혁, 1986; 황혜정, 2007)이 많다. 따라서 그들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긍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청소년들과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Peterson & Spia, 1982). 그러나 청소년 시기가 부모와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기이지만, 또래친구나 외부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경우가 아동기보다 많아지기도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이 촉발되기도 한다.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갈등해결이 원만하게 되지 않고, 장기화에 접어들면 그 갈등으로 야기되는 청소년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모자녀 관계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는 각 개인들이 각자 다른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라도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식 또한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Cohen과 Wills(1985)의 스트레스 완충모델(stress buffering model)에서는 스트레스 경험자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그 주변 중요 타인의 정서적인 지지와 격려가 스트레스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아무리 크고 위협적인 스트레스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주변의 중요한 타인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받는다면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인의 주변

중요 타인들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대상은 가족 중 부모로 부모의 격려와 지지 스트레스 상황을 이길 수 있게 만든다고 한다(백경애, 1997; 장경문, 2005; 한아름, 2013; Aken & Asendorpf).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이 입시위주와 경쟁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부모·자녀 간 갈등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녀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된다.

#### 4. 부모학업기대와 학업스트레스 관계 선행연구 고찰

부모는 자녀들에게 다양한 기대를 한다. 문미옥(1985)의 연구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래 사회생활을 주도해 나갈 성격적인 면을 기대한다고 하였고, 딸에게는 온순하면서도 명랑한 성격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 부모의 과잉 진로 기대를 남학생이 더 높게 지각하여 이에 따른 부담을 경험하기도 한다고 하였다(김영미, 2009). 또 유성경은 특히 일반계고 고등학생 중 남학생이 부모의 높은 기대나 바람 등으로 인하여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한다(강혜원, 2009). 이러한 부모 기대는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부모의 기대가 과도하게 높을 경우 자녀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게 되고, 이는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문제를 초래한다(김기열, 김무열, 1971; 곽민경, 2014). 황혜정(2006)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은 학교와 가족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지각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학업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호소한다고 하였다. 한상영(2012)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원천이 학교생활이며, 그 중 학업문제 때문에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다(곽민경, 2014). 최근 우리나라는 입시위주와 학벌 위주의 교육 환경으로 인하여 교육의 길이 개인의 출세와 계급상승의 기능을 한다고 인식하므로 학령기인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학업 성적과 관련한 경쟁은 더욱 치열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부모는 자녀의 흥미와 적성 및 자녀의 능력 등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과도한 요구들을 자녀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자녀들은 부모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인하여 불안감을 경험하게 된다. 따

라서 학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성취보다는 불안과 심리적인 혼란으로 인하여 시험 불안 및 동기가 없는 학습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이정란, 2005; 윤정미, 2014). 즉, 과도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는 자녀들에게 학습 동기를 고취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오히려 학습활동에 불안을 조성하게 되어 긍정적인 학습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악영향을 미치게 될 위험성이 있다(김길기, 1993)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와 관련해서도 청소년들은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 어머니가 과도하게 거부하거나 제재하는 행동을 할수록(김동희, 2013)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어머니가 자녀의 학업에 대한 압박을 높게 가할수록(박서연, 정영숙, 2010; 오정희, 선혜연, 2013)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 또 부모들이 자녀의 학업에 대하여 남과 비교하는 행위를 할 때 학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한다(손선경, 2012). 이러한 학업스트레스의 경험에 따른 남·여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보다 학업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문경숙, 2002; 조아미, 2005)도 있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남·여 차이에서의 스트레스 수준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도 있다(문영주, 좌현숙, 2008; 오정희, 선혜연,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학업기대가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여학생의 차이가 있는지를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학생들은 분명 부모와 학업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 학업기대와 학업 스트레스의 관계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의 과도한 학업적 기대와 학업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이주현(2004)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지는 기대가 과도할수록 자녀들이 경험하는 학업과 시험 등에 관한 스트레스가 점점 가중 된다고 했다. 정규태(2009)는 부모가 자녀들의 학습에 관여하면 할수록 자녀의 학업스트레스는 낮아진다고 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적당한 관심과 학습관여가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효능감 및 학업 능력 향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환(1987)은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과도한 성취기대를 가질수록 자녀들은 학업성과 학교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를 점점 더 많이 느낀다는 결과를 나타냈다고 한다. 김경옥(1992)은 부

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학업 성취에 대한 부모의 압력이 높을수록 자녀들의 학업 관련 불안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이솔비(2014)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학습에 대한 관여 중 ‘학습 성과 압력’과 학업관련 스트레스 중 ‘시험스트레스’의 관계가 가장 높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학습에 대한 관여가 자녀가 지각하는 학업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채구묵(1997)은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게 가지는 기대와 교육적 열정으로 인하여 자녀가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으며(김현희, 2009; 문경숙, 2006), 류연자(1994)는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은 높았으나,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에 의한 학업성적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성취압력은 적당한 긴장감을 유발시켜 학업성적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 자녀가 부모로부터 학업에 대한 과도한 관여나 또는 성적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고 지각할 때, 학업과 시험 스트레스 뿐 만 아니라 우울, 무력감과 같은 정서적 문제가 동반하여 나타난다고 보고되어졌다.(박경희, 2008; 정경택, 2003; 최미래, 이인혜, 2003; See, Ang, Har, 2008; 한아름, 2013). 김종범(1994)은 부모의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자녀들의 시험불안이 더 높다고 하였으며, 최경숙(2007)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을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은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심리적 안녕감이 부정적으로 형성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학업성취를 높게 지각하는 여학생이 남학생들보다 심리적 부정감이 더 높게 형성된다고 했다. 이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심리적, 정서적인 면 등 내적 요인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부모의 적절한 학업적 기대가 자녀의 학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학업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도 있다. 부모가 자녀들의 학업에 관여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이해도와 자신감을 키우는 등 자녀들의 학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거나 지지하는 경우, 부모의 지원활동은 자녀의 스트레스 요인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김종백, 2006; Kerr & Stattin, 2000). 이것은 성적 향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자녀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지영(2004)은 초등 영재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성취압력을 낮게 가질수록 자녀가 느끼는

학업스트레스는 낮아지고, 어머니가 자녀의 성취압력을 높게 가질수록 자녀가 느끼는 학업스트레스는 높아진다고 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부모의 기대와 자녀들의 학업 성취 및 학업스트레스에는 많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벌과 학업성적과 관련한 입시위주의 교육여건을 바꿀 수 없는 현실상황에서, 먼저 학생들이 가장 가까이서 접하고 있는 사회인 가정에서의 작은 변화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적절한 학업기대를 자녀들이 긍정적이고 우호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제주시 중학교 2곳, 서귀포시 중학교 3곳에 다니고 있는 400명의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작성하여, 각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 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였으며, 설문 조사 실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총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155명(41.7%), 여자가 217명(58.3%)로 나타났다.

출생순위별로는 첫째 130명(34.9%), 둘째가 102명(27.4%), 셋째 이상이 116명(31.2%)이며, 마지막으로 외동아가 24((6.5%)명으로 나타났다. 또 학년별로는 1학년 131(35.2%)명, 2학년 127명(34.1%), 3학년 114명(30.6%)의 학생이 설문에 참여했다.

표 Ⅲ-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항목	구 분	N(명)	%
성별	남자	155	41.7
	여자	217	58.3
학년	1학년	131	35.2
	2학년	127	34.1
	3학년	114	30.6
전체		372	100

#### 2.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해 2016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 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5개 중학교를 방문하여 4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다.

그 중 불성실 응답을 제외하여 372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설문 조사는 아침 조회 시간이나 또는 수업시간을 할애 받아 실시하였으며, 시간은 약 20~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5개 학교 모두 담임교사들의 협조 하에 실시되었으며, 설문 조사 실시 전 담임교사들을 직접 만나 설문지 내용과 설문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설명 드렸으며, 작성 요령 및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 드리고, 협조 요청하였다. 설문 조사 직전 각 반 교실에서 대상 학생들에게 설문지 내용 및 설문지 작성 방법과 주의 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 및 안내를 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수집된 설문지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하여 상관 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II-2. 자료수집 일정

일 정	내 용
2015.11.20~12.10	-본조사실시 -400부 배부 400부 회수(회수율 100%) -불성실 설문지 28부 폐기(372부 확보)
2015. 12.	-설문지 코딩 : 372부
2016. 1.	-통계 분석
2016. 4.	-논문 완성

### 3. 연구도구

#### 가. 부모 학업성취기대 척도

부모 학업성취기대척도는 Campbell(1994)의 척도를 번안·수정하여 사용한 오은진(201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 수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부모학업기대는 부모 기대 중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갖는 학업 적 성취 또는 학업적으로 성취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자녀들이 일련의 노력을 기울이면 부모들이 바라는 대로 성취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는 성취적인 결과적 믿음이다(신

향숙,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 학업성취기대를 부모 학업기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각 문항은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대체로 그렇다’에 4점이며, 마지막으로 ‘매우 그렇다’에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 기대가 좀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부모 학업 압박기대 척도는 부모가 가지는 자녀의 학습에 대한 과도한 과잉관심으로 자녀들이 불안을 경험할 정도로 불안감을 느끼며 학습의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학습의 효과적인 면에 따라 상과 벌, 칭찬 및 사회적 지지등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거칠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학습동기를 유발시키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 문항을 압박기대(12문항)로 설정하였으며, 문항번호는 1, 3, 6, 8, 10, 11, 13, 14, 16, 19, 21, 23이다.

부모 학업 지지기대 척도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학업기대가 부모의 태도가 민주적이고 수용적이어서 자녀의 성취기대를 지지해주는 것으로서 심리적 안도감 및 위안을 주며,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수용해주는 행동이나 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문항을 지지기대(12문항)로 설정하였으며, 문항번호는 2, 4, 5, 7, 9, 12, 15, 17, 18, 20, 22, 24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부 압박기대 요인이 .85, 모 압박기대 요인이 .87이며, 부 지지기대 요인은 .86, 모 지지기대 요인은 .84이다.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학업성취기대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표 III-3. 부모 학업기대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Cronbach  $\alpha$ )

구분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부모학업 압박기대	12	1,3,6,8,10,11,13,14,16,19,21,23	부 : .85
	12	1,3,6,8,10,11,13,14,16,19,21,23	모 : .87
부모학업 지지기대	12	2,4,5,7,9,12,15,17,18,20,22,24	부 : .86
	12	2,4,5,7,9,12,15,17,18,20,22,24	모 : .84

#### 나. 학업 스트레스 척도

학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오미향, 천성문(1994)의 학업스트레스 척도는 학업스트레스 관련 요인을 측정하는 11개 하위요인의 75문항에 학업스트레스 증상을 측정하는 3개 하위요인의 30문항이 더해져서 총 10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의 증상과 관련된 문항들은 제외하였고, 학업스트레스와 관련된 75문항 중 특히 중학생들의 학업과 관련된 활동에 초점을 둔 4개 요인인 성적, 시험, 공부, 수업요인과 관련한 35개 문항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이주원(2008)의 척도를 광민경(2015)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식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약간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된 5점 척도이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학업스트레스 전체요인이 .94이며,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성적스트레스는 .83, 시험스트레스는 .83, 공부스트레스는 .77, 수업스트레스는 .84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 번호는 다음과 같다. 성적스트레스 문항은 1, 5, 9, 13, 17, 21, 25이며, 시험스트레스 문항은 2,

6, 10, 14, 18, 22, 26, 35이다. 수업스트레스 문항은 3, 7, 11, 15, 19, 23, 27, 30, 32, 34 이며, 공부스트레스 문항은 4, 8, 12, 16, 20, 24, 28, 29, 31, 33이다.

학업스트레스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Cronbach  $\alpha$ )는 표 III-4 와 같다.

표 III-4. 학업스트레스 척도 문항구성과 신뢰도(Cronbach  $\alpha$ )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성적스트레스	7	1,5,9,13,17,21,25	.83
시험스트레스	8	2,6,10,14,18,22,26,35	.83
수업스트레스	10	3,7,11,15,19,23,27,30,32,34	.84
공부스트레스	10	4,8,12,16,20,24,28,29,31,33	.77
학업스트레스 전체	35		.94

#### 4.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SPSS for Window 18.0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방법은 아래의 설명과 같다.

첫째,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내적 일치도(Cronbach  $\alpha$ )를 통하여 확인했다.

둘째, 주요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부모학업기대의 독립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모학업기대의 각 하위요인(부모 지지기대, 부모 압박기대)을 독립변인으로 상정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학업스트레스 각 하위요인(성적, 시험, 수업, 공부)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학업기대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상정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부모학업기대와 학업스트레스 간 관계를 남·여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여섯째, 상관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부모학업기대 하위요인의 독립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남·여학생의 성별을 구분하여 각각의 중

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곱째,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학업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부모학업기대 가운데 부 압박기대와 모 압박기대를 독립변인으로 상정하여 학업스트레스에 대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평균 및 표준편차

먼저 본 연구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상정된 부모학업기대와 학업스트레스에 대하여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VI-1 과 같다.

표 IV-1. 부모학업기대,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기술 통계량

	구 분	평 균(M)	표준편차(SD)
부모 학업기대	부 압박기대	2.71	.82
	부 지지기대	3.63	.69
	모 압박기대	2.80	.79
	모 지지기대	3.73	.64
학업 스트레스	성적스트레스	2.60	.86
	시험스트레스	2.86	.77
	수업스트레스	2.55	.68
	공부스트레스	2.78	.66
	학업스트레스 전체	2.70	.65

표 IV-1 과 같이 부모학업기대 척도 중 부 압박기대의 평균은 2.71, 부 지지기대의 평균은 3.63이다. 이는 중간 값인 3점(5점 척도 중 3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부 지지기대가 3.63인 것을 감안하면 부 압박기대보다는 부 지지기대를 더 크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모 압박기대의 평균은 2.80이고, 모 지지기대의 평균은 3.73이다. 이는 중간 값인 3점(5점 척도 중 3점) 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모 압박기대보다는 모 지지기대를 중학생들이 더 크게 지각하고 있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 학업스트레스 척도는 전체 평균이 2.70으로 중간 값(5점 척도 중 3점)인 3점 보다 낮게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는 성적 스트레스 2.60, 시험 2.86, 수업 2.55, 공부 2.78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들이 느끼는 학업스트레스의 정도가 보통보다는 낮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하위요인들도 중간 값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험(2.86), 공부(2.78), 성적(2.60), 수업(2.55)순이다.

## 2. 부모학업기대와 학업스트레스의 상관관계

표 IV-2. 부모학업기대와 학업스트레스 간 상관관계수( $r$ )

구분	부 압박기대	부 지지기대	모 압박기대	모 지지기대
성적스트레스	.62***	-.23***	.68***	-.23***
시험스트레스	.46***	-.16***	.50***	-.19***
수업스트레스	.44***	-.26***	.43***	-.34***
공부 스트레스	.42***	-.27***	.45***	-.30***
학업스트레스 전체	.54***	-.26***	.58***	-.30***

\*\*\* $p < .001$

연구문제 1의 부모학업기대와 학업스트레스와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2와 같다.

위의 표 IV-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기대와 학업스트레스와의 상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압박기대와 학업스트레스 각 하위요인 및 하위요인을 모두 합산한 학업스트레스 전체와의 상관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 압박기대와 학업스트레스 전체의 상관은 .54( $p < .001$ )이며, 각 하위요인별로는 성적 .62( $p < .001$ ), 시험 .46( $p < .001$ ), 수업 .44( $p < .001$ ), 공부

.42( $p<.001$ )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학생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압박기대가 높아질수록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아버지의 지지기대와 학업스트레스 전체의 상관은  $-.26(p<.001)$ 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별로는 성적  $-.23(p<.001)$ , 시험  $-.16(p<.001)$ , 수업  $-.26(p<.001)$ , 공부  $-.27(p<.001)$ 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 지지기대와 학업스트레스 전체 및 하위요인별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앞서 설명된 압박기대와는 반대로 중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지지기대가 높아질수록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기대와 학업스트레스 간에도 이와 동일한 양상이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압박기대와 학업스트레스 각 하위요인 및 하위요인을 모두 합산한 학업스트레스 전체와의 상관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압박기대와 학업스트레스 전체의 상관은  $.58(p<.001)$ 이며, 각 하위요인별로는 성적  $.68(p<.001)$ , 시험  $.50(p<.001)$ , 수업  $.43(p<.001)$ , 공부  $.45(p<.001)$ 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압박기대가 높을수록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어머니의 지지기대와 학업스트레스 전체의 상관은  $-.30(p<.001)$ 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별로는 성적  $-.23(p<.001)$ , 시험  $-.19(p<.001)$ , 수업  $-.34(p<.001)$ , 공부  $-.30(p<.001)$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 지지기대와 학업스트레스 전체 및 하위요인별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설명된 압박기대와는 반대로 중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지지기대가 높아질수록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부모학업기대의 독립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모학업기대의 각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상정한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IV-3과 같다.

표 IV-3.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부모학업기대의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i>B</i>	<i>SE</i>	$\beta$	<i>t</i>
부 압박기대	.14	.06	.18	2.31**
부 지지기대	-.01	.08	-.01	-.12
모 압박기대	.32	.06	.39	5.02***
모 지지기대	-.17	.09	-.17	-2.02**
<i>R</i> =.61 <i>R</i> <sup>2</sup> =.37 <i>F</i> <sub>(4,367)</sub> =54.59***				

\*\**p*<.01, \*\*\**p*<.001

위의 표 IV-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속변인인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부모학업기대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중다 상관은 .61(*R*=.61)로 나타났으며, 학업스트레스 전체 변량에 대한 부모학업기대의 설명량은 37%(*R*<sup>2</sup>=.37)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학업기대 가운데 부 지지기대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의 독립적 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 압박기대(*t*=2.31, *p*<.01)와 모 압박기대(*t*=5.02, *p*<.001)는 학업스트레스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학업기대 하위요인 중 모 압박기대가 중학생들에게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과도한 학업적 압박을 높게 지각할수록 중학생들이 학업스트레스를 가중 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모 지지기대(*t*=-2.02, *p*<.01)는 학업스트레스에 대하여 부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상관분석에서와 일관된 결과로서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압박기대는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대로 중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지지기대는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업스트레스 각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학업기대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상정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IV-4와 같다.

표 IV-4. 학업스트레스 하위요인에 대한 부모학업기대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요약

독립변인	성적스트레스		시험스트레스		수업스트레스		공부스트레스	
	$\beta$	$t$	$\beta$	$t$	$\beta$	$t$	$\beta$	$t$
부 압박기대	.18	2.45*	.14	1.71	.21	2.47*	.12	1.36
부 지지기대	-.15	-1.60	.01	.14	.11	1.19	-.05	-.50
모 압박기대	.57	7.44***	.36	4.28***	.21	2.50*	.31	3.70***
모 지지기대	.03	.30	-.09	-.99	-.34	-3.76***	-.17	-1.87
	$R=.70$		$R=.51$		$R=.52$		$R=.50$	

\* $p<.05$       \*\*\* $p<.001$

표 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성적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부 압박기대( $t=2.45, p<.05$ )와 모 압박기대( $t=7.44, p<.001$ )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모 압박기대가 성적스트레스에 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의 압박기대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모의 압박기대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시험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모 압박기대의 효과( $t=4.28, p<.05$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의 압박기대가 높을수록 시험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업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부 지지기대를 제외한 부 압박기대( $t=2.47, p<.05$ ), 모 압박기대( $t=2.50, p<.05$ ), 모 지지기대( $t=-3.76, p<.001$ )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의 압박기대와 모의 압박기대를 높게 지각할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모의 지지기대를 높게 지각할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공부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모 압박기대의 효과( $t=3.70, p<.001$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의 압박기대를 높게 지각할수록 공부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 3. 부모학업기대와 학업스트레스 간 관계 남·여 성별 차이

부모학업기대와 학업스트레스 간 관계를 남·여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남녀 성별을 구분하여 이들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IV-5와 같다.

표 IV-5. 부모학업기대와 학업스트레스 간 남·여 성별 상관계수( $r$ )

구분	부 압박기대		부 지지기대		모 압박기대		모 지지기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성적스트레스	.68***	.58***	-.14	-.29***	.69***	.68***	-.18*	-.27***
시험스트레스	.49***	.44***	-.08	-.21*	.50**	.49***	-.11	-.24***
수업스트레스	.46***	.42***	-.18*	-.30***	.41**	.45***	-.26*	-.39***
공부 스트레스	.51***	.35***	-.23*	-.29***	.47**	.43***	-.25*	-.33***
학업스트레스 전체	.59***	.50***	-.17*	-.31***	.58**	.58***	-.22*	-.35***

\* $p < .05$       \*\*\* $p < .001$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본 부모학업기대와 학업스트레스 간 상관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압박기대와 학업스트레스 간에는 정적인 상관이 나타나,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압박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 또한 높아지는 양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와는 반대로 부모의 지지기대는 학업스트레스와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지지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수준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상관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부모학업기대 하위요인의 독립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남·여학생의 성별을 구분하여 각각의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IV-6 과 같다.

표 IV-6.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부모학업기대의 중다회귀분석 (남학생)

독립변인	<i>B</i>	<i>SE</i>	$\beta$	<i>t</i>
부 압박기대	.34	.12	.41	2.90**
부 지지기대	.24	.20	.22	1.22
모 압박기대	.15	.12	.18	1.27
모 지지기대	-.36	.20	-.33	-1.84
<i>R</i> =.62 <i>R</i> <sup>2</sup> =.38 <i>F</i> <sub>(4,150)</sub> =23.41***				

\*\**p*<.01      \*\*\**p*<.001

위의 표 IV-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학생의 경우에는, 종속변인인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부모학업기대의 중다 상관은 .62(*R*=.62)로 나타났으며, 학업스트레스 전체 변량에 대한 부모학업기대의 설명량은 38%(*R*<sup>2</sup>=.38)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학업기대 가운데 부 압박기대의 독립적 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t*=2.90, *p*<.01)으로 나타나 남자 중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압박기대가 높을수록 남자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의 압박적인 학업기대가 남학생들에게는 학업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7.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부모학업기대의 중다회귀분석 (여학생)

독립변인	<i>B</i>	<i>SE</i>	$\beta$	<i>t</i>
부 압박기대	.08	.07	.10	1.08
부 지지기대	-.02	.09	-.02	-.19
모 압박기대	.37	.08	.44	4.58***
모 지지기대	-.20	.10	-.20	-2.00**
<i>R</i> =.62 <i>R</i> <sup>2</sup> =.38 <i>F</i> <sub>(4,212)</sub> =32.51***				

\*\**p*<.01      \*\*\**p*<.001

한편 위의 표 IV-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학생의 경우에는, 종속변인인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부모학업기대의 중다 상관은 .62( $R=.62$ )로 나타났으며, 학업스트레스 전체 변량에 대한 부모학업기대의 설명량은 38%( $R^2=.38$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남학생의 경우 부 압박기대의 독립적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던 것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에는 모 압박기대의 효과( $t=4.58, p<.001$ )와 모 지지기대의 효과( $t=-2.00, p<.01$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중학생은 여자 중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압박기대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여자 중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지지기대가 높을수록 여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 여자 중학생은 어머니의 압박기대가 학업스트레스를 증가 시키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지지기대가 여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를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앞서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학업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부모학업기대 가운데 부 압박기대와 모 압박기대를 독립변인으로 상정하여 학업스트레스에 대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IV-8 과 같다.

표 IV-8.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부모학업기대(압박기대)의 중다회귀분석

구분	독립변인	<i>B</i>	<i>SE</i>	$\beta$	<i>t</i>
남학생	부 압박기대	.32	.12	.39	2.75**
	모 압박기대	.19	.11	.23	1.66
		$R=.60$	$R^2=.36$	$F_{(2,152)}=43.27^{***}$	
여학생	부 압박기대	.09	.07	.16	1.24
	모 압박기대	.41	.08	.48	5.19***
		$R=.58$	$R^2=.34$	$F_{(2,214)}=53.90^{***}$	

\*\* $p<.01$       \*\*\* $p<.001$

위의 표 I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 중학생과 여자 중학생에 있어 부모학업기대의 효과가 각각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 중학생의 경우에는 부

압박기대가 학업스트레스에 대하여 독립적인 효과( $t=2.75, p<.01$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 압박기대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의 압박기대가 남자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모의 압박기대는 남자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여학생의 경우에는 모 압박기대가 학업스트레스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 $t=5.19, p<.0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 압박기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여자 중학생이 지각하는 모의 압박기대가 여자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부의 압박기대는 여자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기인 중학생 가운데 남자 중학생은 아버지의 영향을 더 의미하게 받고 있으며, 반면 여자 중학생은 어머니의 영향을 더 유의미하게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대와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남·여학생의 차이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대는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대가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여학생의 차이는 어떠한가?
- 2-1 남자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대가 학업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2-2 여자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대가 학업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제주시 2개 중학교와 서귀포시 3개 중학교를 포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5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1, 2, 3학년 학생들 372명을 조사하여 SPSS 18.0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 통계분석 결과와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비교하면서 내린 논의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 1. 논의

본 연구에서 부모학업기대와 학업스트레스는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기대에 따라 중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가설 1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또, 부모 학업기대 하위 요인 중 부 압박기대는 남자 중학생

들의 학업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모 압박기대와 모 지지기대는 여자 중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 2-1과 2-2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부압박기대가 남자 중학생들에게, 모 압박기대와 모 지지기대가 여자 중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연구문제 1.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대는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가?

우선 본 연구 자료를 Pearson 상관 분석한 결과,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대와 학업스트레스는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1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중학생이 부모의 학업기대 지각정도에 따라서 학업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 수도 있고, 반면 낮게 지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 학업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청소년들 주변의 주요 중요한 인물들에 의한 기대나 성취압력으로 부터 유발된다는 선행연구(최경숙, 2007)와 중학생들이 생활 중에 느끼는 스트레스 요인 중 단연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높으며, 스트레스 요인으로 역시 부모 요인을 경험한다고 한 선행연구(이영옥, 2010; 이재연; 201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 이주현(2004)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지는 성취기대가 과도할수록 자녀들이 경험하는 학업과 시험 등에 관한 스트레스가 점점 가중 된다고 한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는 문경숙(2003)의 선행연구인 청소년이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게 거는 기대와 교육적 열정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 연구와, 황혜정, 김순자(2001)의 연구인 부모의 행동 또는 요구등이 자녀로 하여금 갈등이나 부담감을 느끼게 하며, 부모의 기대가 자녀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음을 예언한 연구(곽민경, 2014)와도 같은 양상의 결과이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쏟아지는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와 압력으로 인해 자살사고나 우울에 이를 만큼 상당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문경숙, 2008; 이수진, 2014). 부모가 자녀의 학업 적 능력의 한계를 감안하지 않은 과도한 학업기대를 보이는 것은 중학생 자녀에게 직접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자녀 관계는 애착에 기인한다. 애착대상인 부모가 언제나 일관적으로 자

녀의 행동에 반응하고 도움을 주면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안정 애착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부모가 일관적이지 못한 반응을 하거나 반응이 없을 때는 부모에 대해서 불신을 형성하게 되어 불안정 애착의 상태가 된다고 했다(Holmes, 2005; Stenger, 2008; 김선희, 2014). Bowlby(1958)는 애착을 태어나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어머니와 아이와의 유대관계라 표현하며 한 인간이 심리적으로 자기와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정서적인 안정이라고 하였다(김수선, 2013). 이러한 애착은 단순히 한 개인의 현상이 아닌 쌍방향에서 상호작용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태어나 성장하는 동안 평생에 걸쳐 지속되며 끊임없이 대인관계의 질로서 설명되어진다고 했다(Crockenberg, 1985; 김영화, 2011, 재인용; 김수선, 2013).

김선희(2014)는 부·모 애착이 강할수록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이 원활하다고 하였고, 부·모 애착이 높을수록 자녀의 삶에 대한 만족감 또한 높다고 하였다. 김선숙(2007)은 부모에게서 정서적으로 지지를 많이 받고 부모와의 애착이 잘 형성된 아동은 불안과 우울 등의 정서적 문제를 낮게 나타내며, 공격적인 성향이 낮다고 하였다(김수선, 2013). 부·모 애착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그 중요성이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한국사회에서 부모자녀관계는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김현철, 김은정, 민경석, 2007; 이희숙, 2013).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중학생들이 부모의 학업기대를 긍정적이고 적절하게 지각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학생들이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애착형성이 앞서야 하겠다. 더불어, 자녀의 눈높이와 자녀의 학업적 능력의 한계 및 제한점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마음가짐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2. 연구문제 2.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대가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여학생의 차이는 어떠한가?

### 2-1. 남자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대가 학업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제주특별자치도 중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대와 학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남·여학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부모 학업기대와 학업스트레스의 관계를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본 부모 학업기대와 학업스트레스 간 상관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의 성취압력을 더 높게 지각한다는 노정애(2004)의 연구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들이 자기를 더 기대한다고 인지하는 백종흠(1984)의 연구와는 다른 양상의 결과이다(정유미, 2002)이다. 특히 부모의 압박기대와 학업스트레스 간에는 정적인 상관이 나타나,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압박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 또한 높아지는 양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부모의 지지기대는 학업스트레스와 부적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지지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수준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여학생을 구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학생의 경우, 남자 중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압박기대가 높을수록 남자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 2-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백경숙과 권용신(2004)의 연구와 신향숙과 장윤옥(2001)의 연구에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버지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 및 대화가 학교생활 및 성적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고 한 연구결과와 같은 양상의 결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앞서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학업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부모 학업기대 가운데 부 압박기대와 모 압박기대를 독립변인으로 선정하여 학업스트레스에 대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에 있어 부모학업기대의 효과가 각각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 2-1과 가설 2-2를 지지하는 결과로, 남자 중학생의 경우에는 부 압박기대가 학업스트레스에 대하여 독립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 압박기대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 중학생들이 지각하



는 부 압박기대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며, 반면 모의 압박기대를 지각하는 정도는 남자 중학생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학습이론가인 Bandura는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관찰함으로써 아버지의 남성적인 면과 성취욕구 등 남성에 대한 성 역할 정체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고 했다(박에스더, 2002). Parsons는 가족 안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이 딸보다는 아들에게 좀 더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박에스더, 2002). Parsons는 아버지의 긍정적인 지지는 아들에게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더 강하게 느끼게 만들고, 반면 반대일 경우는 성취하려는 욕구 또한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Dentsh, Brown, Hetherington(1982)는 아버지가 가족 안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던 지 상관없이 아들 옆에 있다는 존재 이유 만으로도 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분명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보다는 훨씬 연결의 끈이 강하다.

박에스더(2002)의 연구에서도 청소년기 남자아이들은 동성관계인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 동일시하거나 긍정적인 관계라고 인식한다고 했다. 본 연구에서도 남자 중학생들은 아버지의 학업기대를 더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하였을 때 아버지와 아들 간 관계를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로 회복시키고, 동성으로서 부자관계에서만 가질 수 있는 특수하고 질 높은 관계형성을 위한 방법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2. 연구문제 2. 연구문제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대가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여학생의 차이는 어떠한가?

### 2-2. 여자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대가 학업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제주특별자치도 중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학업기대와 학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남·여학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종속변인인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부모 학업기대의 중다 상관은 모 압박기대의 효과와 모 지지기대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여자 중학생은 여자 중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압박기대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자 중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지지기대가 높을수록 여자 중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 어머니의 압박기대와 어머니의 지지기대가 여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를 높이기도 하고, 또 낮추기도 하는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자 중학생의 경우와는 다른 양상의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여자 중학생들은 동성부모인 어머니의 영향을 더 유의하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학생의 경우에 어머니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클수록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더 지각하게 된다는 선행연구(박서영, 2007)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또 어머니의 자기분화 수준에 따라서 딸의 자기분화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김혜원, 2013)와도 일치하는 양상의 결과이다.

Jordan(1991)에 의하면 딸과 어머니와의 특수한 관계를 ‘상호성’이라고 하여, 이것은 반응을 함에 있어 공감적으로 하고,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하며, 서로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준비를 포함한 관계 맺기의 기술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대상관계이론에 바탕을 둔 것으로 어머니와 딸의 관계적 특성을 여자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상호간의 정서적 공감능력, 서로에 대한 관심과 돌봄 등 특성과 일맥상통한다고 하였다. 대상관계이론은 외부대상인 어머니와의 관계에 의하여 아이의 성격 형성 및 그 후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틀이 형성된다는 이론이다(현정희, 2011).

본 연구결과에서도 위 대상관계 이론에서 보여 지는 관계의 양상 및 관계의 질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이는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에게 큰 시사점을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다. 여자 중학생들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어머니의 과도한 학업 압박은 그대로 학업 스트레스를 높이는 데 일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학업 지지기대는 학업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는 어머니가 과도하게 거부하거나 제재하는 행동을 할수록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한 선행연구(김동희, 2013)와 어머니가 자녀의 학업에 대한 압박을 높게 가할수록(박서연, 정영숙, 2010; 오정희, 선혜연, 2013)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어머니와 딸 사이의 특수성인 관계성을 잘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차 후 어머니와 딸의 관계성 증진에 관한 방법적 개입이 요구되어지는 부분이다.

과거 아버지는 생계 부양자, 어머니는 양육자로서의 역할이 고정되던 시대와는 다르게, 현대는 여성의 사회진출 및 핵가족화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자녀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어느 한 쪽의 고정관념에 박힌 역할 수행이 아닌 혼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1970년대에 Lamb가 자녀양육과 관련한 아버지 역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이후 아버지 또한 어머니 못지않게 자녀의 성장 및 양육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게 되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성장발달 및 학업과 관련하여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 모두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는 주요 타자인 부모는 자녀에게 긍정적이고 적절한 학습 기대를 하여 학생들이 불안과 좌절에서 벗어나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학교생활 및 학습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2. 결론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학업기대가 학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자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는 남자 중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학업기대가 유의하게 상관성이 있었고, 여자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는 여자 중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학업기대가 유의하게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어머니와 딸의 관계와 관계의 양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그 관계 속에서 관계의 정적이고 질적 성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과도하게 기대를 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부모의 학업기대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는 지, 자녀들의 성장 발달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부모교육 및 상담 적 개입의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부모 교육에 있어서 부모

중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 또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의 특수한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접근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자의 연구에 따른 실질적인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 중학생은 아버지와의 정적이고 우호적인 관계가 기반이 된 아버지의 긍정적이고 적절한 학업 적 기대가 필요하며, 아버지의 과도한 학업성취 압력을 줄인다면 남자 중학생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훨씬 더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남자 중학생에게 있어서 동성 부모인 아버지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반면 여자 중학생은 어머니와의 관계성을 통한 정적인 유대관계가 중요하며, 그로 인하여 어머니가 적절한 기대를 하였을 때, 여자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자 중학생에게는 동성 부모인 어머니와의 유대관계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연구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설명 되었듯이,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륙과 떨어져있고, 인구가 많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인하여 각 종 전국을 단위로 하는 조사에서 대상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더불어 항상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지리적·지역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만의 동질성을 가질 수 도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 이러한 지리적·지역적 특징으로 전국단위의 단위 사업과 전수조사 등에서 시범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하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 어머니와 딸 사이의 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동성 부모와 동성 자녀와의 관계 증진 상담 및 교육적 개입이 필요 할 것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실질적인 의의가 될 수 있다.

이상의 시사점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으로 이어질 연구를 위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자의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리적·지역적 특수성을 기반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1, 2, 3학년만을 대상으

로 선정함으로써 대상자를 제한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 규모의 연구로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외에 다른 지역들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마다의 연구를 실시한 후 그 연구결과물과 비교하는 것이 본 연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연구 대상을 중학생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등으로 확대하여 연구 실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에 부응하는 결과를 도출 하는 데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자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선정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한 부모 가정의 편부·편모, 다문화 가정, 그리고 조손 가정 등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음을 간과하고, 양쪽 부모 모두 존재하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하여 연구가 시행됐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써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함을 연구에 반영하지 못한 단점이 발생하여 본 연구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를 통하여 연구 대상을 확대하고, 결과를 도출하여 본 연구와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시행함에 있어 자료 수집 기간 및 다른 외적인 상황들을 통제하지 못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를 시작하여 설문지를 배포한 시점이 11월~12월로 학교마다 학기말을 맞이하여 학생들 대부분이 학교 수업과 성적 등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시기이고, 또 각 학교마다 인성, 진로, 자기성장 등 특색 있게 관련 프로그램들이 교육되고 시행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대로 중학생들이 본인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기대를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도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받게 되는 학업스트레스도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응답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에 이어질 연구에서는 어느 한 시점에서 실시되는 설문 조사가 아닌 조사 시기를 결정 할 때 좀 더 다양하고 다각적인 시점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고, 좀 더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출한 결과 수집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척도 선정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은 모두 자기보고식으로 구성된 객관적인 질문지로 구성되었다. 이는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할 때 객관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을 간과했으며, 이것은 자기보고식 설문지 응답 방식이 갖는 단점을 내포한다. 예를 들면 자신을 좀 더 좋게, 세련되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좀 더 부정적으로 응답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적당한 방법적인 절차도 없었다. 따라서 후속에서 이어질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과 제한점을 염두에 두고, 자기보고식 객관적 설문지 외에 주변 주요 인물들에 의한 인터뷰 및 관찰을 통한 보고를 추가하고, 또 각 대상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인터뷰 형식의 면접을 시행한 양적 접근 방법도 병행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민정(2014). **중학생들의 행복,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혜원(2009). **남녀 학업 우수청소년의 부모애착,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진로 포부의 관계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희경(2013). **부모의 양육신념이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자녀의 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경미(2007).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식 및 증상분석**.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민경(201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진로기대가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부모자녀의사소통과 주관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선정(2006). **아버지와 의사소통 수준, 정서적 교육지원, 학업기대수준이 청소년의 성취동기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본선(2004). **부모의 학업기대에 대한 초등학생의 지각에 관한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낙원(1973). **학생이 지각한 부모 및 교사의 성취기대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영배(2012). **초등학생의 학업 동기 향상을 위한 통합적 학업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KCI** , 12(2), 1-27.
- 권정혜(2000). **감각추구성향, 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가 인터넷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70-271.
- 권정혜(2000). **감각추구성향, 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가 인터넷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70-271.
- 권현자(1988).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교육적 기대가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현주(2007). 학업스트레스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옥(1992). 부모의 성취압력이 학생의 정의적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원(199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계현(1996). 고통에 관한 교육 인간학적 연구. *교육철학*, 13, 1-30.
- 김규석(2009). 중학교 남. 여학생 간의 평가문항 유형별 수학 학업성취도 차이 분석.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희(2013). 일반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관련 보호요인 분석-극복력, 부모 양육행동, 학교생활특성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희(2014).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와 학교적응에 대한 극복력의 매개효과. *한국모자보건학회지*, 8(1).
- 김민활(1987). 가정환경이 통제의 소재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별님(2012). 부모의 성취압력, 성취동기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숙(2007)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2, 65-95.
- 김성희(2014). 고등학생의 부모애착과 삶의 만족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에서 감사성향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선(2013). 아동의 부모 애착과 자기통제력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미(2009). 성별에 따라 대인관계 질에 미치는 부, 모의 양육태도와 애착 비교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주(1998). 어머니 및 아동의 기대수준과 아동의 귀인성향과의 관계. *아동교육*: 7(2), 204-216.
- 김영화(2011). 초등학생의 부모애착과 대인관계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상명



- 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 최명선(2001). 의미분석법에 의한 아동 및 청소년의 부모 이미지 연구. **놀이치료연구**, 4(2), 3-14.
- 김용래, 김태은(2004). 학업자 스트레스, 학교적응(대처) 및 학업성적. **교육연구논점**, 21, 5-31.
- 김용래, 김태은(2005). **교육심리학**. 서울: 형설출판사.
- 김윤희(200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스트레스와 정서경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자기위로능력을 매개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량(2000). 관계상호성과 여대생의 자아 존중감, 성취동기와 자율동기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의철, 박영신, 탁수연(2005).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신뢰, 자기 효능감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연차학술발표 논문집**, 153-154.
- 김인경(1993).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가족유형 및 가족 의사소통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96-119.
- 김인옥(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 자아 존중감 및 참자기와 거짓자기의 관계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백, 김준엽(2009). 학업 성취 관련 요인과 자아개념을 매개로한 부모의 교육 기대와 학업관여가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종단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23(2), 389-412.
- 김종백, 김태은(2008). 학교행복 검사도구 개발 및 타당화. **한국교육심리학회지**, 22(1), 259-279.
- 김중범(1995). 부모의 성취압력과 시험불안 및 학업성적의 관계분석.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주원(2003). 청소년기 자녀로 인한 부모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명, 이은주(2015). 중학생의 학업성취 및 성별에 따른 자아개념의 차이: 다차원성 자아개념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3), 97-122.
- 김향숙(2010). 학부모의 자녀 영어학습에 대한 기대가 자녀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 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숙(1995). **학생이 지각한 교사 및 부모의 기대지각과 학생의 성취동기와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정(1997). **부모의 교육적 기대와 시험불안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희(2009). **성별에 따른 학업스트레스와 시험불안과의 관계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림(2011). **아동 청소년기 외상 경험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경향, 강박사고 경향 간의 관계 : 초기 부적응 도식을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자(2006).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 사회문제해결력의 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남숙(2014). **학생의 학업스트레스 대처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석진(2016). **부모양육태도,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중학생을 중심으로**. 국제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혜숙(1990). **일부 여자 중학생의 자아개념 및 스트레스와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혜숙(1986). **일부 여자중학생의 자아개념 및 스트레스와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1), 270-272.
- 디아오리권(2011). **한국과 중국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기대 및 아동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 비교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성기(2003). **남학생과 여학생 대화 언어의 생태와 지도 방법**, 한국초등국어학회지, 22(22), 195-237.
- 류연자(1994). **어머니의 성취압력과 아동의 스트레스와의 관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준열(2009). **빈곤층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및 진로태도 성숙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진열(2010). **빈곤층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및 진로태도성숙**

- 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경숙(2006).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 친구에 대한 애착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27(5), 143-157.
- 문경숙(2008).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 - 자기개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 논문집, 1(2), 72-73.
- 문경일(2012).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영주, 좌현숙(2008).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있어 정서적 조절 능력의 조절효과. 사회복지연구, 38, 353-379.
- 박강학(2004).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습관여 형태가 중학생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경희(2008).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기대수준과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중재변인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광배, 신민섭(1991). 고등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298-314.
- 박금옥(2007). 아동이 지각한 부모, 교사, 친구의 학업기대와 학문적 자아개념 및 성취동기와의 관계.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진(2012). 유아의 기질, 부부갈등,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새와(2012).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및 희망감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서연, 정영숙(2010).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및 내재화 문제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3(1), 17-32.
- 박서영(2007).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및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자(2002). 스트레스, 자기통제력, 사회적 불편감 및 부모태도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세라(2015). **대상관계이론에서 본 유아심리발달과 부모의 역할**.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자(1996).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습소의 및 대처행동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순희(1996).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 실업계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에스더(2002). **빈곤가정의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부자 관계를 매개변인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 김의철(2003). 한국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자녀 관계의 영향 : 토착 심리학적 접근. **청소년학 연구**, 10(1), 139-165.
- 박영신, 김희철, 한가혜(2003).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지각: 토착 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127-164.
- 박영신, 김의철(2003b).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1), 81-114.
- 박지혜(2013). **중학생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청소년기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태수(2001). **부모의 학습참여형태가 자녀의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경숙, 권용신.(2004).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6(2), 87-99.
- 변명숙(2005). **부모의 성역할 유형과 양육방식이 아동의 성역할 특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선희(2007). 부자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가족복지학**, 12(1), 105-125.
- 선혜연(2013).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4(1), 197-212.
- 성영혜(1996). **아동사회학**. 서울: 문음사.
- 손선경(2012). **부모의 학업비교행위가 청소년의 자기고양 동기에 미치는 영향: 학업스트레스, 학업열등감의 매개효과 및 학업자아개념의 조절효과 검**

- 중.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은영(2007). **초등학생의 과외 특성에 따른 과외 스트레스 및 학업 자아개념과의 관계**. 춘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동우(2012).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자녀 진로 기대가 학업,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분화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병창(2011). **초등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기대스트레스가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중호, 진성조, 김연제(2010). **지각된 부모의 학업지원, 성취기대, 일상통제가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자기결정성 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심리학회(교육심리연구)**, 24(1), 121~137.
- 신지연(2014). **생활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전략: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대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향숙(2000).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디 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아버지 역할수행과 어머니 대처방식을 중심으로**.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현균(2002). **청소년의 학업부담감, 부정적 정서, 감정표현 불능증 및 지각된 부모양육행동과 신체화 증상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171-187.
- 신현심(2005) **인지-행동적 학업스트레스 대처훈련이 초등학생의 시험불안에 미치는효과**.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수경(2005).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교육적 기대와 학업적 자기 효능감 및 학업 성취와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아영아, 정원철(2011). **청소년의 학업 및 가족갈등 스트레스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복지연구**, 12(4).
- 안우경(2016). **부모의 양육태도와 중학교 남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2013). 2013년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www.mogef.go.kr](http://www.mogef.go.kr).
- 여진경(2006).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아들의 관계-아들이 지각한 아버지 역할과 아버지·아들의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염행철, 조성연(200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생태학적 변인과의 관계. 청소년복지 연구, 9(2), 1-21.
- 오미향, 천성문(1994).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요인 및 증상분석과 그 감소를 위한 명상훈련의 효과. 서강대학교 학생상담연구소 인간이해, 15, 63-96.
- 오영미(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은진(2013). 중.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방식이 학업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학업성취기대 매개효과.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정희, 선혜연(2013).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4(1), 197-212.
- 오정희, 선혜연(2013).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 관련변인 연구: 성별 및 학교급, 지각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상담학 연구, 14(3), 1981-1994.
- 우채영, 김관희(2011).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변인들 간의 다차원적구조 분석. 청소년학 연구, 18(4), 219-240.
- 원호택, 이민규(1987).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스트레스. 한국임상심리학회지, 6(1), 22-32.
- 유병선(2008). 부모애착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과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정미(2014).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기대수준과 학업스트레스가 학업 성적과 학업성적과 인터넷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영애(1998). 看護部署의 位置가 看護管理와 患者看護 遂行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研究.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종미(2012). 웃음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학업성취 동기와 학업성취에



-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지영(2011). 영어 학습에 대한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과 영어 학습 동기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주(199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행동 문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경진, 조성호(2004). 청소년의 자살 고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667-685.
- 이경진, 조성호(2004). 청소년의 자살 고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1(2), 213-226.
- 이광희. (2005).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요인 및 증상 분석과 인지-행동적 학업스트레스 대처 훈련의 효과.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규(2010).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학업기대와 학습동기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희(2011). 부모의 학업기대에 따른 지적 장애학생의 학습동기 적응행동 수준.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서원, 장용언(2011).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가족응집성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8(11), 111-136.
- 이슬비(2014). 여자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진, 조상철, 허일범(2008).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9(3), 289-301.
- 이수진(2014).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취정서 및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희(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옥(2010). 발달단계 측면에서 본 일상적 스트레스가 아동. 청소년이 지각한 환경과 심리적 문제에 미치는 변인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유정(2009). 전환기학생들의 학업동기와 학업성취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탐색: 개인, 학교 및 가정의 성취목적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이은영(2010). **아동이 지각한 교사와 부모의 성취기대와 아동의 성취동기 및 학업성적과의 상관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구(2000).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과 청소년의 적응**.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연(2014). **중학생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매개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란(2005). **초등학생의 지각하는 어머니의 기대수준과 이에 대한 수용정도가 아동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고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좌찬(1987). **시험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학생의 불안 수용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주원(2008). **자아탄력성과 학업전략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상위인지전략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진영(2006).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적 변인과 개인 심리적 변인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창석, 김윤정(2003). **청소년들의 사랑과 성태도: 남학생과 여학생의 지각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 연구**, 10(1), 277-296.
- 이태훈(2000). **가족의 시간성과 가정의 공간성**.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5, 128-153.
- 이희숙(2013). **부모자녀관계가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와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선(2013).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규혁(1986). **학생의 정신건강에 관한 분석적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임호찬(2008). **유아의 사고능력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의 영향**. **영재교육 연구**, 18(3), 613-634.
- 장지희(2010).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와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진주(2009)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성혜(1989).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 및 대처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세경(1988).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자원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택(2003).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2(2), 151-162.
- 정규태(2009).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행태와 학업스트레스 및 학업적 자기 효능감의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조(1990).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자녀의 발달적 기대수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소희(2010). **부모의 성취압력과 청소년의 자기불일치가 학업적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유미(2002). **부모의 성취압력이 아동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태연, 이윤미(2005). 어머니의 자녀 양육관과 양육태도가 자녀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갖는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2(1), 61-80.
- 정현희, 최경순(1995).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성역할, 정서반응,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6(1), 33-47.
- 정현희,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과 아동의 친 사회적 도덕 판단 능력. **아동학회지**, 13(1), 38-51.
- 정호숙(1998). **부모의 교육적 태도와 시험불안과 학업성적과의 관계**.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2015). **2015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조수영(1980). **학업성적과 가정환경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아미(2005).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학업성취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

- 효과. **한국교육학회**, 43(3), 137-155.
- 조정인(2014). **농촌 중학생과 부모의 부모자녀관계와 자기 효능감의 성별 차이**.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정현(2014). **부모의 학업기대 및 학습관여가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삼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동욱(2005). **부모와 교사의 기대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PISA 자료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연진(2008). **아동이 지각한 부모기대, 자아개념, 성취동기와의 관계**.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은영(2008). **어머니의 학습관여와 초등학생의 학습동기와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숙(2007).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성취목표가 아동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경(2009). **아동이 지각한 부모 및 교사기대가 아동의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경, 조용래(2005). **생활스트레스와 지각된 불안 통제감 및 대처양식이 대학생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임상심리학회**, 24(2), 281-298.
- 최미래, 이인혜(2003).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 존중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363-383.
- 최병두(2011).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개발원(2011).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한수연(2006). **부모기대 및 부모자녀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아름(2013).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의 교육지원활동이 남·여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윤영(2010). **초등학교 남·여 아동의 기질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정희(2011). **Bowen과 대상관계이론을 통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 효과 검증.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슬기(2014). **청소년의 강박적 성향에 따른 정서인식 명확성과 정서강도의 특징**.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영수, 전선영(2005). 청소년의 생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9(4), 125-149.
- 홍정희(1993). **유아기 자녀 행동에 대한 맞벌이 부모의 기대와 역할 수행정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혜정(2006).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9(1), 193-216.
- Ainsworth, M. S.(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and academicrein for cement. N.Y.: Russell Sage Foundation.
- Bandura. A.(1968).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N.S.: Prentice-Hall.
- Baumrind, D.(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4(1), 1-103.
- Biller, H. B. & Davids, A.(1973). A Parent-child relations, personal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A. Davis(eds), *Abnormal child psychology. Belmont, CA.: Brooks-Cole*. 48-76.
- Block, J. H. (1973). Conceptions of sex role: Some cross-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8, 512-526.
- Bowlby, J.(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Bowlby, J.(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 Basic Books.
- Campbell (1994). J. R.(1994). *Developing cross-cultural/cross-national*.
- Crandall, V. C.(1969). *Sex differencesin expectancy of intellectual*.
- Crockenberg, S. C.(1985). Toddrlt's reactions to maternal anger. *Merrill-Polmer Quarterly*, 31, 361-373.

- Erikson, E.(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Hetherington, E. M. & Jan L. Deur(1975). The effects of father absence on child development. In Bronfenbrenner, Urie & Maureen A. Mahoney(eds), *Influences on Human Development*.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Inc: 413-24.
- Hoffman, M. L.(1971). Father absence and consequence of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 400-406.
- Lazarus, A. C.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Mcgraw-Hill
- Lipper, V. A. Block, J. & Block, J. H.(1973). Sex-role and socialization: Some personality concomitant and environmental anteced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9, 321-341.
- Melson, G, F.(1980). *Family and Environment. Minneapoils* : Burgess publishing.
- Papalia, D. E. & Olds, S. W.(1979). *A child's world: Infancy through adolescence*. New York: McGraw-Hill.
- Peterson, R. S. & Spia, P.(1982). *Adolescence and Stress in Handbook of Stress. Free*.
- Re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Mcgraw-Hill.
- Rice, K. G. (1990). Attachment in adolescence : A narrative and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 511-538.
- Ruble, D. N., & Martin, C. A. (1998). Gender development. In W. Dam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Wiley.
- Rutter, V. (1995). Adolescence: *Whose hell is it? Psychology Today*, 28, 54-65.
- Williams, E, Radin, N. & Coggins, K.(1996). Parental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nd the school performance of Ojibwa children: *An*

*exploratory study. Merrill-palmer Quaterly, 42(4), 578-595.*

Williams, J. E. & Best, D. L. (1990). *Measuring sex stereotypes: A multinational study.* Newbury Park, CA: Sage.

<Abstract>

The Effect of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parents' academic expectation  
on the academic stress

- Focus on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Lee Bok Ja

Major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Choi, Bo Young

This study aimed to have a look at the effect of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parents academic expectation on the academic stress, and verify the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Therefore, subjects for inquiry are arranged as the followings to fulfill the purpose of the study:

Q1: Does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parents academic expectation affect to their academic stress?

Q2: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female and male middle students in their perceived parents academic expectation?

2-1) What effect does male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parents' academic stress make on their academic stress?

2-2) What effect does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parents' academic stress make on their academic stress?

For this stud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by

middle school students from five schools: two Jeju-si-located middle schools, and three seogwiposi-located middle schools. Survey period was arranged from Nov. 20<sup>th</sup> to Dec. 10<sup>th</sup>, 2015. Statistical investigation are made based on the 372 answers, except for insincere 28 answers from 400 answers.

Study measurement tools are the followings.

First, parents' academic expectation scale was measured by 5-point-Likert scale, composed of total 24 questions, which was used by 오은진(2013). Next, academic stress was measured by 5-point-Likert scale, composed of total 35 questions, which was used by 광민경(2015).

The data was verified by SPSS for Window 18.0, conducting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o sum up,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the followings.

First, fathers' academic expectation is statistically correlated not only to each sub factor of academic stress, but also to the sum of all the sub factors. It can be understood that as perceived fathers' academic pressure-expectation increases, students' academic stress increases. On the other hand, fathers' academic support-expectation is negatively correlated both to each sub factor of academic stress, and to the sum of all the sub factors, in statistics. In opposition to academic pressure-expectation, students' perceived fathers' academic support-expectations increases, students' academic stress decreases.

The similar aspect was observed between mothers' academic expectation and academic stress. Mothers' academic expectation is statistically correlated not only to each sub factor of academic stress, but also to the sum of all the sub factors. It can be understood that as perceived mothers' academic pressure-expectation increases, students' academic stress increases. On the other hand, mothers' academic support-expectation is negatively correlated both to each sub factor of academic stress, and to the sum of all the sub factors. In opposition to academic pressure-expectation, student's

perceived mothers' academic support-expectations increases, students' academic stress decreases.

Second, the differences in the effect of students' perceived parents' academic expectation on academic stres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are the followings.

In case of male middle school students, as perceived fathers' academic pressure-expectation increases, the students' academic stress increases. Therefore, fathers' excessive academic expectations is found out to be a factor raising male students' academic stress.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as perceived mothers' academic pressure-expectation increases, the students' academic stress increases. However, if perceived mothers' academic support-expectation increases, the students' academic stress decreases. Therefore, while mothers' excessive academic expectations is found out to be a factor raising female student's academic stress, mothers' supportive academic expectation decreases academic stress of female middle students.

To sum up, students' perceived parents' academic expectation affects to academic stress meaningfully. Also, according the result of comparison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the academic stress of male middle students can be either high or low, depending on the effect of fathers' academic expectation. In case of female middle students, the academic stress can be high or low, depending on the effect mothers' academic expectation.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study, strategic intervention for develop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considering the special tie derived from the same sex, should be needed. Therefore, education and counselling for communicating with family must take precedence to mak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 부 록 목 차

부록 1. 질문지

부록 2. 부모학업 성취기대 척도

부록 3. 학업스트레스 척도

## 부록 1. 질 문 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자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 석사과정을 수학과 있는 학생으로, 석사학위를 위하여 논문을 준비 중입니다.

본 질문지는 여러분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업기대와 학업스트레스 관계에서 남녀학생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각 문항에 정해진 정답은 없으며, 물론 여러분의 학교성적과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각 질문에 대하여 아무런 편견과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대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신 질문지의 내용은 본 연구자의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수단으로 전혀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은 모두 본 연구자의 연구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성심성의껏 진솔하게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응답을 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11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과정 이복자 드림

지도 교수 : 최보영

이메일 : lbj0704@hanmail.net

귀하는 본 연구 질문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하시면,  표 해 주세요.  예, 동의합니다.

※다음은 연구 자료로서 필요한, 여러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해당되는 문항을 하나만 골라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1. 본인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        )    ② 여 (        )
  
2. 본인의 학교와 학년을 써 주세요. (        ) 학교    (        )학년
  
3. 본인의 출생순위는? ① 첫째 ② 둘째 이상 ③ 막내 ④ 외동(자녀가 혼자임)

## 부록 2. 부모 학업 성취기대 척도

1. 다음을 읽고, 평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부모님의 태도와 가장 같다’라고 여겨지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체크 해 주세요.)

	문항	부모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아버지(어머니)는 내 성적에 만족하지 못 하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2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좋은 성적을 받으면 기뻐한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3	나는 공부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4	나는 아버지(어머니)의 도움으로 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5	아버지(어머니)는 학교생활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6	아버지(어머니)는 공부하는데 내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7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져 주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8	나는 아버지(어머니)에게 떨어진 성적표를 보여주는 것이 겁이 난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9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학교생활에 대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할 때 만족해 하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0	나는 아버지(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만큼 똑똑한 학생이 아니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1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학교 숙제가 없다고 하면 나를 믿지 않으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2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학교성적에 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항상 지켜보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3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하길 바라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4	아버지(어머니)는 항상 내가 부담이 될 정도의 연습, 복습을 하라고 말씀하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5	아버지(어머니)는 학교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항상 열렬히 지지해 주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6	아버지(어머니)가 학교생활에 대해 간섭을 적게 하신다면, 학교생활이 더 즐거울 것이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7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아버지	1	2	3	4	5

	원하는 대학에 가기를 바라신다.	어머니	1	2	3	4	5
18	나는 아버지(어머니)가 내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9	아버지(어머니)는 내 공부나 학교성적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20	나는 아버지(어머니)와 어려운 일에 대해 거리낌 없이 이야기 할 수 있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21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야만 만족해하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22	아버지(어머니)는 나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조언을 잘 해주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23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학교생활을 잘 하도록 엄격하게 체재를 가하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24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남에게 자랑하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 부록 3. 학업 스트레스 척도

2. 다음의 각 문항들은 여러분이 학업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V'표시를 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1	2	3	4	5
2	시험 과목수가 많거나 시험범위가 너무 넓다.	1	2	3	4	5
3	내용이 너무 어려워 선생님의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1	2	3	4	5
4	공부를 해야 하지만 하기 싫다.	1	2	3	4	5
5	부모의 기대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1	2	3	4	5
6	시험을 자주 쳐서 부담스럽다.	1	2	3	4	5
7	수업시간에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1	2	3	4	5
8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해야 한다.	1	2	3	4	5
9	성적이 나빠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꾸중이나 벌을 받는다.	1	2	3	4	5
10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초조하다.	1	2	3	4	5
11	수업시간에 필요한 준비물이 많	1	2	3	4	5

	아 짜증난다.					
12	부모님이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 공부를 하라고 한다.	1	2	3	4	5
13	친구들 앞에서 시험점수가 공개 되서 기분이 좋지 않다.	1	2	3	4	5
14	내가 공부한 것과는 다른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1	2	3	4	5
15	수업시간에 졸음이 온다.	1	2	3	4	5
16	각 과목에 따라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모른다.	1	2	3	4	5
17	성적표를 받을 때 떨린다.	1	2	3	4	5
18	시험문제가 어렵다.	1	2	3	4	5
19	하루 수업시간이 너무 많다.	1	2	3	4	5
20	공부 이외의 일(동아리, 종교 활동, 예체능활동)에 시간을 빼앗긴다.	1	2	3	4	5
21	부모님이 나의 성적을 남과 비교한다.	1	2	3	4	5
22	시험문제를 푸는 시간이 부족하다.	1	2	3	4	5
23	수업시간 중에 질문이나 지적을 받는다.	1	2	3	4	5
24	공부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시간이 없다.	1	2	3	4	5
25	성적이 떨어진다.	1	2	3	4	5
26	시험지만 받으면 떨려서 분명히	1	2	3	4	5



	알았던 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27	수업 중 선생님의 질문에 답을 못한다.	1	2	3	4	5
28	숙제나 과제가 너무 많다.	1	2	3	4	5
29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해야 한다.	1	2	3	4	5
30	수업시간에 친구가 장난이나 말을 건다.	1	2	3	4	5
31	공부하는 내용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1	2	3	4	5
32	운동장이나 옆 교실의 소음으로 선생님의 설명이 잘 들리지 않는다.	1	2	3	4	5
33	공부하는 도중에 다른 생각이 많이 난다.	1	2	3	4	5
34	선생님께서 성의 없이 가르친다.	1	2	3	4	5
35	쉽거나 아는 문제를 실수로 틀린다.	1	2	3	4	5

## 감사의 글

직장을 다니며 워킹맘으로서 나름 나의 일상들은 시간이라는 이름과 함께 흘러가고 있었다. 때론 지치고 힘들지만, 귀여운 나의 분신을 보며 힘을 내어 보기도 하고, 주변의 지인들과의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며 위로를 삼아 지내온 나날들이 이제 어언 40대에 접어들었다.

‘나는 늘 괜찮다’라고 머릿속에 되뇌이며 힘들고 지친 일상을 보듬어 안고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도 어딘가 모를 나약한 나의 모습들이 종종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럴 때마다 갈 길을 잃어버린 듯 멍하니 그저 시간을 날려버리기도 수태 반복하며 살아왔다.

그러던 중 주변의 수많은 정보 중 대학원이라는 곳에 눈과 귀를 열게 되었고, 그 정보를 알아갈수록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라고 스스로에게 힘을 실으며, 내면의 내공을 키워오는 작업을 스스로 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대학원 5학기 생활은 나에게 쉽지만은 않았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밤에 학습을 한다는 것은, 물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리 녹녹한 것은 아니었다. 솔직히 중간 중간 ‘포기’라는 단어와도 무척 친하게 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럴 때 마다 나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을 이어갔고, 또 나의 대학원 생활을 가능하게 했던 여러 교수님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보리라 다짐하는 일을 무한 반복하였다. 그리고 여러 여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는, 아이에게 모범적인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또한 누구보다 강렬하였다.

시작할 때의 기억이 벌써 아련함으로 남는 시기가 되었다. 대학원 입학을 위한 첫 면접 심사 때부터 늘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주신 김 성봉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지도교수로서 지켜봐 주시진 못하였지만, 교수님의 속 깊은 마음을 알기에 마음 속 깊이 감사함을 느낍니다. 또 졸업을 위한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좌절을 경험했을 때에 힘을 내어 매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나의 사랑스런 지도 교수님이신 최 보영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늘 한결 같이 옆에 있어 주시고, 변함없는 외유내강으로 지도해주신 점 살아가는 동안 늘 감사함으로 기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씨기의 기본과 논문

쓰기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좋은 조언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셨던 박정환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을 꼭 전하고 싶다. 감사드립니다.

인간 사 모든 것이 새옹지마처럼 스쳐 지나가버리는 것이 우리 내 삶인 듯하다. 그 순간순간 시간들이 모여 각자의 인생 드라마가 그려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희로애락을 경험하며 자기만큼의 감정으로 살아간다.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나의 대학원 생활 또한 중요한 중점 사건으로 내 인생의 한 막을 그린다. 결코 쉽지만은 않은, 그러나 한편으론 너무나 값지고 의미 있는 나의 소중한 것으로 기억된다.

이제 인생의 한 막을 내리고, 새로운 막이 시작되는 중년을 바라보는 나이에 접어든 한 유기체로서, 내 삶의 드라마는 내 스스로 개척하며, 경험하고 인내하며 긍정적으로 그려보고 싶은 마음 더 간절해진다.

이 모든 경험과 시간들이 온전히 나의 내적 자원이 되고, 나의 남은 삶의 원동력이 되리라 믿으며 살아가는 중이기도 하다.

때론 오히려 고난에 부딪히더라도 지금 이 대학원 생활의 의미를 생각하며 내 삶을 다독이고 위로하며 살아가고 싶다. 내 대학원 생활은 다른 누가 아닌 온전히 나를 위한, 나만을 배려한 삶의 한 조각이었기에 분명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나의 늦은 나이의 학습을 지원해준 든든한 가족들과 부족한 나의 지식의 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교수님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 모든 분들의 사랑과 열망에 걸 맞는 알찬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리라는 약속을 전합니다.